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31

4

讲义

66

5

퀴즈

90

6

보고서

94

7

자료

96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한국은 식민지 지배를 받은 나라가 해방 후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한 보기 드문 사례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강좌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항 이후 조선의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식민지 지배를 통해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해방 후 한국의 고도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한국경제가 현재 직면한 문제를 긴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02

학습목표

- (1)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역사적 사실과 경제학의 논리에 부합하도록 이해한다.
- (2) 각 시대의 제도와 경제시스템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학습한다.
- (3) 제시된 도표를 작성하는데 이용된 통계 데이터의 특성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학습한다.

03

기대효과

이 강좌는 지난 100여 년에 걸친 한국경제의 변모 과정을 가능한 한 그래프를 이용하여 수량적으로 이해하고 외국과도 비교함으로써 수강생들이 한국경제의 역사와 현재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고자 한다. 한국인의 근현대사에 관한 인식에는 식민지 지배와 분단의 경험으로 인해 민족주의나 이념 대립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는 사실에 입각해 있지 않거나 경제학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강좌는 수강생들이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한국 근현대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04

주차별 구성

| | |
|------|---------------------|
| 1주차 | 경제성장사를 보는 시각 |
| 2주차 | 거시경제와 성장의 원천 |
| 3주차 | 화폐금융과 재정 |
| 4주차 | 인적 및 물적 자본의 형성 |
| 5주차 | 생활수준과 불평등 |
| 6주차 | 개항기: 비숍의 기행문을 통한 관찰 |
| 7주차 | 식민지 지배와 제도 변화 |
| 8주차 | 식민지기 경제개발 |
| 9주차 | 해방, 분단, 전쟁과 원조경제 |
| 10주차 | 고도경제성장 |
| 11주차 | 정책전환과 사회개발 |
| 12주차 | 저성장 속의 한국경제 |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

주차

경제 성장사를 보는 시각

1-1

1인당 GDP로 본 세계사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장기통계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성장사> 강좌를 맡은 김낙년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경제성장사를 보는 시각'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조선의 개항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 경제성장의 역사를 다룹니다. 조선의 전통사회는 개항의 충격을 받아 근대사회로 이행하기 시작하였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체제로 편입되었으며, 그 말기에는 전시 통제체제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방 후에는 남북한이 분단되어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각 시기에 체제와 제도가 달랐고 경제적 성과에서도 차이가 큼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개항 이후에 마치 제도의 실험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과 같은 독특한 경험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체제 또는 제도와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세계사에서 유례가 드문 사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또한 후발 국가로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선발 국가와는 다른 특징을 띠게 됩니다. 후발국은 선발국으로부터 기술과 지식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이 가속되어 catch up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고도성장기에 선발국과의 격차를 급속히 좁혔고, 현재 1인당 GDP는 선발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발국이라 해서 모두 선발국과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개도국은 여전히 선발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더욱 벌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하여 급속한 catch up이 이루어진 나라에서 어떻게 고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그렇지 못한 나라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명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본 강의에서 그러한 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주차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제도와 경제성장' 그리고 '경제적 후진성과 catch up'에 관한 기존 논의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본 강의가 한국경제성장사를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는지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주요 국가의 1인당 GDP의 장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에서 진행된 catch up을 포함한 세계의 경제 성장사를 개관해 두겠습니다. 마지막에서는 본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각국의 국민계정 통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이를 그 이전 시기로 소급해서 연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를 집대성해 놓은 것이 Maddison의 통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거기에서 각국의 GDP, 인구, 1인당 GDP의 장기 추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인당 GDP는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므로 이를 통해 각국의 생활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변천되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림 1-1은 1700년 이후 네덜란드, 영국,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GDP를 보여줍니다. 각 연도의 1인당 GDP는 2011년의 미국 달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비교할 수 있게 작성되었는데, 예컨대 100년 전인 1922년의 미국의 1인당 GDP는 2011년 가격 기준으로 1만 달러였는데, 한국이 그 수준에 도달한 것은 1987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시점의 국가 간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지만, 거기에는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언급은 나중에 미루고, 여기서는 먼저 그 결과를 몇 가지 예시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세계 경제의 리더로서 부상하기 전에 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였고, 영국은 19세기 말에 미국에 그 자리를 내주었으며, 미국이 세계 경제의 리더가 된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1인당 GDP가 근대 초기에는 매우 낮았지만, 전후에 급격히 상승하여 catch up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장기에 걸친 1인당 GDP의 추이를 통상의 눈금으로 나타내면, 최근 연도에 비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변화가 과소하게 보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1인당 GDP가 100일 때 5% 증가하면 증가액이 5이지만, 1,000일 때 5% 증가는 50이 됩니다. 즉 증가율은 5%로 같지만, 통상의 눈금에서는 전자가 후자가 1/10에 불과한 것처럼 과소하게 보입니다.

그림 1-2는 그림 1-1의 1인당 GDP를 로그값으로 바꾸어 나타낸 것입니다. 그 경우 눈금이 500, 5000, 50,000달러로 10배씩 높아지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곧 증가율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즉 그래프가 가파를수록 증가율이 높고 완만할수록 증가율이 낮음을 뜻하므로 절대 금액과 함께 증가율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음수이면 감소율을 보여줍니다. 그림 1-1과 비교하면 양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1인당 GDP가 크게 바뀌는 장기간의 추이를 비교할 때는 그림 1-2로 보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먼저 네덜란드는 18세기까지는 세계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경제의 리더였지만, 19세기 초에 영국에 그 자리를 내어 주게 됩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는 데이터가 잘 갖추어져 있어 모든 연도의 1인당 GDP가 제시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추계 되지 못한 연도가 많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19세기 이전은 통계 데이터의 부족으로 1911년 이후와 같은 추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820년과 1870년의 수치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Maddison에 의해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논리적인 추정, 즉 guess와 estimate이 합성된 guesstimat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도 보라색과 초록색의 동그라미 표식으로 되어 있는데 19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거친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동아시아 국가 간을 비교해 보면 19세기의 한국과 중국의 1인당 GDP의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일본은 중국과 한국보다 높았다는 점, 그리고 18세기 초에는 중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었지만 18세기 후반에 역전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개시되기 전의 중국과 서유럽의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을까요? 2002년 포머란츠(Pomeranz)는 두 지역이 모두 자원의 제약하에서 인구가 포화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생활 수준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서유럽에는 신대륙이 발견되고 석탄과 같은 부존자원이 풍부했다는 요인에 의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후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림 1-2를 보면 산업혁명 전인 18세기 후반에 이미 영국의 1인당 GDP는 중국보다 이미 3배 정도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격차는 이후 더욱 벌어져 1900년에는 8배 정도로, 1960년에는 12배로까지 확대됩니다. 미국 대비로 보면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동아시아 국가의 서유럽에 대한 catch up은 전전에 일본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프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만이 그 뒤를 이었고 그다음이 한국이었습니다. 전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충격은 패전국인 일본에서 매우 컸고 그로 인해 1인당 GDP가 급락하였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외에도 해방과 분단의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전장이 되었던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1인당 GDP의 감소가 두드러졌지만, 전후 회복도 빨랐습니다. 전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전쟁 특수를 누린 미국은 전시에 1인당 GDP가 급등하였지만, 전후에 하락하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그림 1-2에서 주목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으로부터 회복이 빨랐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 국가에 대한 catch up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일본은 1970년대 초에 이미 영국을 따라잡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출발이 늦었지만, 서유럽과의 격차를 급속히 좁혀 최근에는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의 1인당 GDP 수준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 발 더 늦게 출발해서 서유럽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북한은 전전에는 남한보다 높았지만, 전후에는 성장이 정체 또는 후퇴하여 현재에는 해방 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의 급속한 성장과 서유럽 국가에 대한 catch up, 그 속에서 남북한이 대조적인 경로를 보인 것은 세계사의 관점에서도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였는지를 구명하는 일은 매우 흥미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 1-2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2018년에 38,000달러로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통상 각국의 1인당 GDP는 자국 화폐 표시의 1인당 GDP를 대미 환율로 나누어 달러로 환산하는데, 그 경우 한국의 1인당 GDP는 이들 나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각국의 생활 수준을 비교할 때는 각국의 물가수준의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표시 1인당 GDP가 높더라도 물가수준이 높으면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은 그 만큼 줄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각국의 물가수준 차이가 반영된 것을 구매력평가지수인 PPP라고 하는데, 환율 대신에 PPP로 나누어 달러 가격으로 환산합니다. 선진국은 개도국보다 특히 비교역재인 서비스 요금이 비싸 물가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PPP로 환산하면 선진국의 1인당 GDP는 환율로 환산할 때보다 낮아지고 개도국은 반대로 높아집니다. 앞서 한국의 1인당 GDP가 환율로 환산할 때는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일본에 못 미쳤지만, PPP로 환산하면 근접한 것으로 나온 것은 각국의 물가수준의 차이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국의 통계청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해서 매달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며 이를 통해 물가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국의 물가수준이 얼마나 다른가를 조사해서 PPP를 구하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국가 간의 동일한 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조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 ICP라는 국제기구가 1970년 이후 여러 차례 조사해 왔고, 그에 의거하여 각국의 PPP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addison 통계가 대상으로 하는 이전 시기에는 그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 ICP의 조사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상의 제약을 감안하여 Maddison 통계는 1990년의 PPP를 이용하여 각국의 물가 수준의 차이를 반영한 1인당 GDP를 구한 다음, 그 이전 시기는 각국의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로 소급 연장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는 2011년의 PPP를 이용하여 물가수준의 차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benchmark로 이용된 1990년의 각국의 물가수준 차이가 그 이전 시기에도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benchmark 연도와 멀어지면 각국의 물가수준 차이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Maddison 통계에 이용된 한국 데이터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GDP와 같은 국민계정 통계는 1953년부터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는 추계에 의거한 것입니다. 식민지기에는 그 이전의 전통사회와는 달리 근대적 통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구에 대한 센서스 조사가 실시되었고, 농산물이나 공산품의 품목별로 생산통계와 무역통계가 작성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품의 투입 정보에 관한 각종 조사결과 등을 활용하면 UN의 국민계정 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입각한 생산 및 지출의 GDP 추계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추계를 처음으로 시도한 연구가 일본의 히토츠바시대학 경제연구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과가 1988년의 『구일본식민지경제통계』로 나왔고, 그것이 오랫동안 Maddison 통계의 한국 데이터로 이용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낙성대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해방 전의 국민계정을 추계하고 이를 해방 후와 연결하는 연구가 추진되었습니다.

그 성과가 2006년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김낙년 편으로 출판되었고, 이것은 일본의 히토츠바시대학 경제연구소에 의해 동경대학 출판회에서 『식민지기조선의 국민경제계산 1910-1945』으로 번역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해방 전 통계를 남북한으로 나누고, 해방 후 통계와 연결을 시도한 결과가 2012년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김낙년 편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로 확대하여 해방 전과 후를 포괄하는 장기통계를 구축하고자 한 성과가 2018년 『한국의 장기통계 I, II』 김낙년·박기주·박이택·차명수로 발행되었고, 그 영문판인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가 2022년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가 Maddison 통계의 한국 데이터로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본 강의에서 제시되는 한국의 장기통계는 이들 성과에 의거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은 선정된 몇 개 국가의 1인당 GDP 추이를 본 것인데, 그림 1-3은 Maddison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세계의 전체 평균과 지역별 평균의 추이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또는 세계의 평균은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논리적인 추정인 guesstimate에 의존한 경우가 많아지지만, 전체의 흐름을 보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계 경제의 평균 1인당 GDP는 까만색 실선과 동그라미의 표식으로 나타내었는데, 1820년에 1,102달러에서 2011년 미국 달러 기준으로 2018년에는 15,212달러로 13.8배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약 200년간에 걸쳐 증가 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유럽 25.3배이며, 서유럽 분지 21.4배, 중동 18.9배, 서유럽 17.2배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여기서 서유럽 분지(Western Offshoots)란 북미인 미국, 캐나다와 호주 및 뉴질랜드와 같이 서유럽인이 이주하여 형성한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 4.4배와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8.2배도 이 시기에 성장하고 있었지만, 평균 이하로 상대적으로 지체된 지역이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는 각각 14.8배와 15배로 증가하여 세계평균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그 추이를 보면 양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서유럽 분지의 1인당 GDP 수준이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다음이 서유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두 지역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 눈에 띄며,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두 지역의 격차가 더 벌어진 후 좁혀지고 있습니다. 세계대전 때 서유럽은 전장이 되어 타격을 받았지만, 서유럽 분지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유럽과 동유럽 간의 격차도 시기에 따라 크게 변동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19세기에는 산업혁명 이후 벌어졌던 두 지역의 격차를 동유럽이 빠르게 catch up하고 있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과 1990년대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로 인해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유럽은 현재 EU에 가입되었고 서유럽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의 1인당 GDP는 세계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 추이도 지난 200년에 걸쳐 세계평균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나머지 지역은 19세기 또는 20세기 중반까지는 대체로 정체되어 있었으며 서유럽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가 1960년대 이후 증가율이 가속되어 세계평균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혔지만, 그 증가 속도가 그림 1-2에서 본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느리고, 도달한 1인당 GDP 수준도 거기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전에 일본과 한국에서 이미 나타났던 catch up의 움직임도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해 보면 미미한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 인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중국의 추이에 크게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의 평균에는 북한과 몽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또 하나의 인구 밀집 지역인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도 동아시아에 비해 한 템포 늦게 출발했지만, 점차 세계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1인당 GDP가 아시아보다 앞서 세계평균과의 격차를 좁혔고, 근래에는 이를 앞지를 수 있었던 것은 산유국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는 데이터가 가장 열악한 지역이지만, 1인당 GDP의 추이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시적으로 아시아보다 높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1980년~2000년의 정체로 인해 다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1-2 동아시아 국가의 catch up

지난 시간에는 Maddison의 1인당 GDP 통계를 이용하여 세계경제사를 개관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동아시아에 초점을 맞추어 20세기 이후 1인당 GDP의 catch up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1-4는 Maddison 통계 DB를 이용하여 미국의 1인당 GDP를 100으로 놓았을 경우, 동아시아 각국의 1인당 GDP가 몇 %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영국도 제시했는데, 20세기 전반에는 기복은 있지만, 미국의 80% 전후의 수준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70%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 미국이 생산성에서 세계 경제의 리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1인당 GDP도 미국 대비로 비교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먼저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일본의 1인당 GDP는 미국의 1/4 수준이었지만, 1920년대는 30%, 1930년대는 40%로 격차를 좁혀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전시체제로 들어서면서 격차가 벌어져 일본의 패전 직후에는 19%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만도 일본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대만은 제1차 세계대전 전에 미국의 13% 수준에서 1930년대에는 21%까지 격차를 좁혔지만, 전사를 거친 1950년대 초에는 10% 이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1910년대 초기에는 미국의 12%의 수준에서 1930년대에는 17%까지 격차를 좁혔지만, 전사와 해방 및 분단을 거치면서 미국의 6% 수준으로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들 동아시아 3국이 유사한 추이를 보인 것은 이 시기에 일본제국의 지역통합 체제에 편입되어 있어 이들 경제가 연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들 지역이 전시체제로 편입되기 전에는 미국보다 성장률이 빨라 catch up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catch up은 놀랄만한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패전 후 미국의 19%에서 1970년에 65%로 격차를 좁혔습니다. 이후 그 속도는 떨어졌지만 1991년에 85%로 정점에 달한 후,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정체기를 거치면서 미국과의 격차가 다시 벌어져 현재는 그 70%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만은 일본보다 catch up의 시동이 다소 늦었지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미국의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일본을 능가하였습니다. 한국은 대만보다 시동이 더 늦어 1967년까지는 미국의 1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그 후 급속한 catch up이 이루어져 현재는 미국의 69%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일본에 거의 근접한 상태로 나왔지만 최근 데이터로 update되면 PPP 기준으로는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은 현재 미국의 3%의 수준에 불과하며 해방 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세기 이후 북한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시차가 있지만 유사한 양상을 보인 것은 왜일까요? 그리고 해방 전에도 전시체제로 들어가기 전에는 미국에 대한 catch up이 완만하게 진행되었지만, 전후의 고도성장기에는 급속한 catch up이 일어나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두 시기의 이러한 차이를 규정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동아시아 국가가 전시체제에서는 미국과의 격차가 급속히 벌어졌는데, 그것은 왜일까요?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는 전후 정치적 혼란과 체제 개편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비해 대만 그리고 한국의 catch up의 시동이 늦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앞서 성장한 일본은 1992년 이후 미국과의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데, 대만과 한국도 곧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까요? 남한과 북한은 해방 전에는 유사한 추이를 보였지만, 해방 후에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은 왜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 강의를 통해 나름의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1-3

제도와 경제성장

지난 시간에 20세기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1인당 GDP의 catch up을 둘러싸고 제기한 질문들은 본 강의가 염두에 두고 있는 문제의식의 일단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도와 경제성장'을, 다음 시간에는 '경제적 후진성과 catch up'이라는 주제로 이 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한국은 개항 후 식민지 지배체제로 편입되었고 해방 후에는 남북이 분단되면서 체제가 바뀌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도가 바뀌었고 경제적 성과도 달라졌습니다. 만약 제도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역사적 조건이 다른 두 나라의 경제적 성과가 달랐다면, 그 성과의 차이가 제도 때문인지 다른 환경이나 역사적 조건의 차이 때문인지를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이나 역사적 조건을 동일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제도의 변화가 어떤 차이를 낳는지를 실험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국 근현대사가 마치 제도의 실험실과 같다고 앞서 언급한 것은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도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주요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발원한 근대적 제도가 어떻게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는지에 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가 어떤 의미에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973년 노스와 토마스의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은 왜 서구세계에서 처음으로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제성장이 나타났는가, 즉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원인을 서구에서 효율적인 경제 제도가 출현한 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상 기술을 개발하거나,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이나 노동의 질을 높이거나, 개인보다는 회사와 같은 더 큰 조직을 이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 즉 기술개발, 자본축적, 교육, 규모의 경제는 그들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 그 자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 경제성장으로 생각되는 요인들이 왜 어떤 사회에서는 나타났고 다른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못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든 것이 효율적인 경제 제도의 출현 여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효율적인 경제 제도란 개인적인 편익 또는 비용이 사회적인 편익 또는 비용과 근접하도록 해 주는 재산권의 설정을 핵심으로 봅니다. 두 가지 편익 또는 비용이 괴리되어 있다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편익의 일부를 차지하거나 비용 일부가 그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재산권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거나 행사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경제학에서 외부성(externality)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거래로 인해 이득을 보거나 손실을 보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거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권이 완벽하게 보장된다는 것은 외부성이 0이 되는 세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경제성장은 가만히 놔두어도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기여한 만큼 보상되는 강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때 각자가 노력한 결과는 개인적 편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의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적인 세계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욱 그렇습니다. 재산권을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부딪치는 장애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든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어느 개인이 전체 사회의 편익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였다고 해 봅시다.

만약 그 발명을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베껴 이용, 즉 무임승차 한다면, 그것을 발명한 개인은 수익을 얻기는 커녕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회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미리 예상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발명은 시도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특허제도는 자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안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없이는 기술혁신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근대 초기 스페인 국왕이 양치기 길드인 Mesta에게 부여한 특권에 관한 것입니다. Mesta는 양떼를 몰고 이동하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재배하는 작물이 양떼가 지나가면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즉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로 인해 농민들이 입은 손실의 규모를 100이라 하고, Mesta가 얻은 이득이 40, 그중에서 20을 특권의 대가로 왕에게 상납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농민이 입은 손실 100이 Mesta와 왕의 수익 합계인 40보다 크므로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Mesta에게 부여한 특권을 폐지하고 농민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게 되면, 사회 전체로는 이득이 되지만 그렇다고 제도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손실을 보게 되는 Mesta가 반발할 것은 물론이고, 국왕도 Mesta로부터의 상납 대신에 수익이 늘어나게 된 농민들로부터 조세를 징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결과도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도변화로 수익을 얻는 농민들이 40을 거두어서 Mesta와 왕의 이전 수입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양떼로부터 입은 피해가 제각기 다를 터인데 이를 정확히 알기도 힘들고, 서로 무임승차를 하고자 할 것이므로 40의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례는 효율적인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왜 어렵고 비효율적인 제도가 왜 지속하는지, 그로 인해 경제성장이 왜 이루어지지 못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재산권을 설정할 때는 무임승차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개인이나 일부의 집단이 감당하기 어려워 국가가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봉건 영주들이 소규모의 영역을 분산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지만, 근대 초기에 이들을 통합한 국민국가가 출현하여 공공재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방이나 치안 유지와 같은 공공재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규모가 클수록 단위당 비용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현한 국민국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산권을 설정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국가 간의 경쟁과 빈번한 전쟁으로 인해 국왕은 항상 재정수입이 부족했고, Mesta에 부여된 바와 같은 특권이 남발되었습니다. 상업과 제조업에서도 품목별로 특권이 부여될 정도였습니다.

국왕은 거대 상인들로부터 자금의 차입에도 크게 의존하였지만, 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가 빈발했습니다. 노스와 토마스는 1500년~1700년의 국민국가가 출현한 시기에 스페인과 프랑스를 국가가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해 경제가 쇠퇴하거나 정체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와 대비하여 네덜란드와 영국을 경제성장의 성공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 시기 해상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는데, 그것은 거래비용을 낮추는 혁신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잘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는 거래되는 품목의 제값을 아는 것도, 거래조건을 놓고 협상하는 것도,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하는 것도 모두 불확실하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들을 각각 탐색비용, 협상비용, 이행비용이라 하며 포괄해서 거래비용이라고 합니다.

경제원론과 같은 경제학 강의에서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시장균형가격이 형성된다고 가르치지만, 설명의 편의상 거래비용이 0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으며, 거래비용이 높아 거래를 통해 얻은 이득보다 큰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에 따르는 불확실성과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거래가 확대되고 그로 인해 분업이 심화되어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이 이 시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났습니다.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전문화된 거래소가 생겼고, 표준적인 영업 관행이 정착되었으며, 상업 분쟁이 일어나면 법원에 호소하여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는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상업의 발달은 선박운송업의 혁신을 가져왔고 농업과 제조업에서도 특화가 진전되어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자본시장의 발달은 이 과정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앞의 그림 1-2에서 보았듯이 19세기 초에 영국에 의해 역전될 때까지 가장 부유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은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하였지만, 네덜란드의 제도와 기술을 모방하거나 도입하는데 적극적이었고 또 상당히 접근하였습니다. 나아가 영국이 새롭게 추가한 것은 특허제도를 도입하여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입니다. 이것은 산업혁명에서 기술혁신을 가속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1688년 명예혁명을 통해 국왕도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입헌주의 원리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스와 웨인가스트의 연구는 그 의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스페인이나 프랑스에 비해 국왕의 권한이 의회로부터 더 많은 견제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왕의 자의적인 과세권의 남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왕과 의회는 증세 등을 놓고 빈번히 대립해 왔지만, 결국 명예혁명을 통해서 왕권이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의회 우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의회는 재정에 관한 권한도 장악하여 의회를 통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에 대한 감사권도 갖게 되었습니다. 사법제도에서도 국왕의 특권이 폐지되고 관습법의 우위가 확립되었으며, 재판관의 신분을 보장하여 국왕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더 많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되었음을 뜻하는데, 이를 통해 재산권의 보호와 경제적 자유를 보다 확실한 것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예혁명은 재정혁명을 수반하였습니다. 과거 국왕의 재산권 침해가 종종 재정위기로부터 촉발되었기 때문에 그 근원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회의 지지자들은 정부 내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갖게 된 대신에 증세를 통해 정부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정부 부채도 늘어났지만, 국채를 발행하는 이자율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1693년에 14%였던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730년대에는 3%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체제가 예측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받고 있음을 금융시장이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채시장의 안정화는 자본시장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민간의 증권 발행 이자율도 하락하게 됩니다.



이자율 하락은 수익성이 있는 투자의 범위를 높여 자본축적을 촉진하게 됩니다. 명예혁명에 의한 제도변화가 경제성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들은 재정과 자본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의의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영국이나 네덜란드에 초점을 맞추어 재산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효율적인 제도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였지만, 이것이 얼마나 일반화될 수 있는지는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도가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가 포함된 경제성장 모형을 만들어 추정하는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여기서 제도의 질이란 예컨대 각국이 재산권 침해로부터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는지에 관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나라별로 제도의 질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 지표를 이용합니다. 여기서는 아세모글루, 존슨, 로빈슨의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각국의 1인당 소득 또는 그 성장률을 Y , 제도의 질을 X , 그 외의 1인당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묶어 Z 라고 표현하면, $Y=a+bX+cZ+e$ 와 같은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e 는 오차항을 나타냅니다. 이를 식 1-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형으로 제도의 질적 차이가 1인당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 데이터가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하여 각국의 1인당 소득의 차이 중에서 제도 이외의 다른 변수 Z 의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을 감안하고 나서도 제도의 질, 즉 X 의 차이로 설명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X 의 계수 값 b 가 플러스(+)로 나오고 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 예컨대 틀릴 확률이 5% 미만이라면 제도의 질이 높은 나라일수록 1인당 소득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b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으로 나오면, 제도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설명변수인 제도의 질 X 가 피설명변수인 1인당 소득 Y 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거꾸로 Y 가 높아져서 X 가 높아지는 역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와 같은 변수는 다른 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으므로 역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 이 모형은 내생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며, 추정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X 와 밀접한 관계를 갖지만 Y 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 D 를 찾을 수 있다면, 먼저 D 를 이용하여 X 를 추정하고, 그렇게 추정된 결과인 \hat{X} 로 Y 를 추정하면 역의 인과관계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D 를 도구변수라고 하고, 이러한 추정 방법을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이라고 합니다.

아세모글루, 존슨, 로빈슨의 연구는 이러한 추정 방법으로 제도의 질적 차이가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낳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유럽의 식민지였던 나라를 대상으로 유럽인들이 식민지에 정착할 당시에 직면했던 사망률이 그들의 식민지 정착과 식민지 통치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는 가설을 세웁니다.

즉 유럽인들이 상대적으로 덜 사망한 식민지에서는 유럽인들이 더 많이 이주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정치 및 경제 제도가 이식되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식민지를 약탈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현한 식민지의 제도 유형이 독립한 이후에도 이어져 현재 각국의 제도를 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그들은 먼저 유럽인의 식민지 정착 당시의 각국의 사망률 D 를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현재의 제도의 차이, 즉 X 가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고, 그렇게 추정된 결과인 \hat{X} 로 경제적 성과 Y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이 추정에 이용된 샘플 수는 64개국입니다. 따라서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결론이 앞에서 살펴본 영국이나 네덜란드에 그치지 않고 많은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생각해 볼 문제는 영국에서 먼저 확립된 재산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효율적인 제도가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영국이 네덜란드의 제도나 기술을 모방 또는 도입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인접한 나라 사이에서는 그러한 경로가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절대왕정의 구체제 하에서는 그것과 원리상 충돌하는 근대적 제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웠고 정치적 변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789년 프랑스혁명이 그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혁명은 앞서 일어난 명예혁명이나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과 마찬가지로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독립선언은 프랑스 개혁가들에게 큰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 자연권(natural rights), 권력분립과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과 같은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다만 프랑스혁명은 억압으로부터 인간의 해방과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혁명으로 성립한 공화정은 그 이후 공포정치와 나폴레옹의 독재, 왕정복고를 거쳐 다시 공화정으로 이어지는 정치체제의 격변과 불안정이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앞의 두 혁명과는 달랐습니다.

제도의 정비와 확산이라는 점에서 가장 주목되는 프랑스혁명의 유산은 나폴레옹 법전 또는 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혁명 이전의 프랑스에서는 로마법과 봉건시대의 법제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른 관습법이 혼재되어 있었고, 결혼과 가족에 관해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관할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혁명은 이들 법을 통일하고 모든 프랑스인에게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 평등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습 귀족이나 특권은 폐지되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가에 대한 교회의 영향을 배제하여 세속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의 원칙, 사유재산권의 불가침이 기본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대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법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앞서 노스와 토마스가 말하는 효율적인 제도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혁명의 성공은 유럽의 다른 구체제 국가의 군주에게는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혁명이 자기 나라로 수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프랑스 간의 전쟁인 Napoleonic Wars가 1803년~1815년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의 많은 지역을 점령하거나 그 영향 아래 놓게 됩니다. 이때 이들 지역의 구체제가 붕괴되고 민족주의가 고양되는 한편 나폴레옹 법전이 이들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프랑스에 점령된 지역에서 시행된 나폴레옹 법전과 그 외에 구래의 관습법 등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 로마법을 기초로 하면서 당시 유럽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체계화한 민법을 19세기 말에 제정하였습니다. 스위스에서도 20세기 초에 선행하는 두 법전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민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들 민법은 인간의 이성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법의 체계를 갖도록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성문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관습법에 기초하고 있어 불문법으로 되어 있는 영국과 다릅니다. 이를 통해 유럽 대륙에서는 영미의 관습법과 대비되는 대륙법 또는 민법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근대적 제도의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전술한 아세모글루, 존슨, 로빈슨의 연구가 이 점을 밝히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 식민지 지배가 다른 지역으로 그들의 제도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시사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미와 호주 및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 등에서는 영국의 관습법이 전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륙 유럽 국가의 식민지인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는 대부분 대륙법인 민법의 유산을 잇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의 제도가 거의 그대로 이식된 경우도 있지만, 현지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충돌 또는 융합하면서 수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외래의 권력에 의해 식민지에 그들의 제도가 이식되거나 강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발적으로 유럽의 법제도를 수용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1896년 제정된 일본의 민법은 메이지유신이라는 체제 전환을 전제로 해서 전술한 독일과 프랑스의 민법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식민지 법제의 일환으로 1911년 일본의 민법이 거의 그대로 이식되었습니다.





요컨대 근대적 제도의 확산은 모방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혁명과 전쟁 또는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 경제적 후진성과 catch up

지난 시간에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생산성이 가장 높았던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 갔음을 보았습니다. 이들 국가는 전후의 고도성장기에 catch up이 놀라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지만, 전전에도 완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catch up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catch up이 일어나는 경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거센크론의 연구에 제시된 경제적 후진성 가설이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그는 19세기의 유럽에서 선발국인 영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후진국인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경제성장의 속도가 빨랐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산업의 생산 또는 조직 구조에서도 선발국에는 없었던 특징을 띠게 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센크론은 후진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후진국 일반이라기보다는 영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후진적이라는 뜻이므로 여기서는 후발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후발국 경제의 특징으로서 먼저 선발국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빌려 올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발성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후발국에서 공업화가 일단 시작되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와 함께 후발국에는 공업화의 장애 요인도 있습니다. 후발국에는 자본보다 노동이 풍부하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그는 노동자가 토지와 연결된 텃줄을 끊고 공장에 적합하도록 훈련될 필요가 있지만, 그러한 노동은 의외로 부족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자본도 부족하고 경영 자원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 간의 상호보완성이 있다는 점도 공업화를 출발시키는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철도업은 연료를 공급하는 석탄업 없이는 발전하기 어렵고, 거꾸로 석탄업은 철도가 많이 놓여야 석탄의 저렴한 운반이 가능해집니다. 즉 한 산업의 발전은 다른 산업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만들어 내고, 후자의 발전은 다시 전자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보완성이 있는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며,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후발국의 성장이 급속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발국이 여러 신생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데, 전술한 노동, 자금, 경영 자원의 부족이라는 큰 장애를 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부족과 관련해서는 후발국이 오히려 기술적으로 앞선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산설비는 대체로 자본집약적이어서 희소한 노동을 절약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발국에서는 이미 생산설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는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예컨대 철강업에서는 뒤쳐져 있던 독일이 영국보다 앞선 기술의 용광로를 도입하였고, 그 후 다시 더 후진적이었던 러시아가 독일에 대해 마찬가지로 시도를 한 것은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조달에 관해서는 후발국에는 선발국에는 없는 금융 제도가 창출되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은행은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는 형태로 단기자금을 공급하는 상업은행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륙의 은행은 철도건설이나 공업화를 위해 기업에 장단기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은행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에서는 주식회사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지만, 후발국의 공업화에서는 주식회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은행이 합병을 통해 대규모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산하에 산업 기업을 거느리고 통제하는 카르텔을 조직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농노제가 1861년까지 유지될 정도로 독일에 비해서도 더욱 후진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공업화를 추진하고 그를 위한 자금을 동원하는데 장애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금융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후발국의 공업화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그는 공업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들고 있습니다. 후발국에서 오랫동안 발전을 막아왔던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합리적인 논의만으로는 어렵고, 거의 종교에 가까운 열정(a quasi-religious fever)이나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는 신념을 통해 인간의 상상력에 불을 붙이고 경제발전에 역량을 결집하는 공업화 이데올로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생시몽주의가, 독일에서는 민족주의가, 그리고 더욱 후진적인 러시아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그 역할을 맡았다고 봅니다. 그는 19세기 유럽 국가에 대한 관찰을 통해 후발국이 공업화를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고, 그 시점에서 후진성의 정도 차이가 그 이후의 발전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출발점에서 후진성이 큰 나라일수록 광공업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어 공업화가 불연속적으로 가속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또한 후진성이 클수록 생산설비나 기업의 규모가 더 커지며, 소비재보다는 생산재에 더 중점을 두고, 인민들의 소비를 줄이는, 즉 저축을 늘리는 압박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아가 앞서 독일과 러시아에 대해 보았듯이 후진성이 클수록 자금의 공급에서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가 창출되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진성이 클수록 농업이 성장하는 산업에 시장이나 자금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줄어들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센크론의 가설은 후발국이 선발국의 존재 자체로 인해 그들과 다른 발전 경로를 밟게 된다는 것이므로 단선적으로 경제발전을 전망하는 다음의 연구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마르크스는 “산업적으로 앞선 나라는 덜 발전된 나라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로스토우는 각국의 경제가 전통사회, 도약을 위한 선행조건이 형성되는 과도기, 도약 단계, 성숙 단계, 대중 소비사회라는 5개의 발전단계를 거쳐 간다고 봅니다.

즉 각국의 경제는 앞의 5단계 중의 어느 단계에 위치하며 후발국은 선진국이 거쳐 간 단계를 따라 단선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거센크론은 후발국의 경제발전은 바로 그 후진성으로 인하여 선진국과는 다른 발전 유형을 띠게 되며, 후진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전술한 제도나 이데올로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적 요인에 의해 각국의 대응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센크론의 가설은 19세기 유럽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를 다른 시기와 지역으로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그의 가설 중의 하나는 후진성이 큰 나라일수록 선진국과의 기술 갭이 커지므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성장률이 높아 catch up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모비츠는 이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때 선진국과의 기술 갭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것을 사회적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교육 수준으로 대표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도 있지만, 정치적 · 상업적 · 산업적 · 금융적인 제도도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대규모 사업을 조직하고 운영해 본 경험이나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 제도와 시장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적 능력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실증하기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푸터만은 사회적 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교육이나 훈련과 경험을 통해 얻는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하는데, 그것은 노동윤리나 학습 태도 또는 사회적 규범이나 신뢰에 의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사회적 능력이 원시시대로부터 장기에 걸쳐 형성되고, 가족이나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면서 축적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능력이 금방 형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사회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후진성이 크더라도 catch up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모비츠는 1870년 이후 1인당 GDP 데이터가 있는 16개국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과연 성장률이 높은지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영국과 미국 이외에 유럽의 주요국과 호주와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는 모두 사회적 능력이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경제적 리더 국가인 미국과 나머지 국가 간의 소득 격차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오히려 벌어졌다가 그 후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 국가들 내부의 소득분포도, 전시에 더 벌어진 것을 제외하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소득수준과 그 후의 성장률 간의 상관계수를 구해 보아도 전시를 제외하면 대체로 마이너스의 값으로 나왔습니다. 즉 이들 중 당초 소득이 낮은 나라가 성장률이 빨랐음을 뜻합니다. 다만 상관계수는 1950년~1973년間に -0.9 정도로 높았다가 1973년 이후 크게 하락하여 시기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는 이미 개발되어 상용 중이었지만 나머지 국가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한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확대된 기술 갭이 전후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급속한 catch up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교육 수준이 높아져 사회적 능력도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이 확대된 것이 지식과 기술의 전파를 촉진하였습니다.

1973년 이후에는 기술 갭이 점차 축소되어 감에 따라 catch up도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로 가면 catch up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농업의 비중이 높았고 사회적 능력도 전후에 비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거기에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여파로 지식의 확산이 저해되었다는 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된 데이터는 Maddison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각국의 1인당 GDP이므로 거센크론이 초점을 맞추었던 광공업에서의 급격한 성장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센크론의 경제적 후진성 가설은 그가 대상으로 삼았던 19세기 유럽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시기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기술의 차용에 의한 빠른 catch up이 이루어진 점 이외에도 금융 제도나 공업화 이데올로기 등 경제적 후진성에 기인하는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가설을 확대 적용하면 한국 경제성장의 역사적 과정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 본 강좌의 구성

마지막으로 본 강좌의 전체 구성에 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경제성장사를 서술할 때 두 가지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기 순으로 고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제별로 나누되 각 주제에 관해서는 전체 시기를 포괄해서 고찰하는 것입니다.

두 접근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기별 고찰은 널리 이용되는 방식이며, 각 시기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고, 어떤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어떤 경제적 성과를 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시기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주제별 고찰은 장기통계를 이용하여 각 주제의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의 경제성장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지만, 각 시기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강의는 두 접근이 보완적이라고 생각하며 양자를 모두 시도하고자 합니다. 제1부에서는 주제별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다루는 주제는 서론에 해당하는 1주차 강의 주제인 '경제성장사를 보는 시각'을 포함하여 '거시경제와 성장의 원천', '화폐 금융과 재정', '인적 및 물적 자본의 형성', '생활 수준과 불평등'의 5개 주제입니다. 전체 시기를 포괄하는 접근이 가능하였던 것은 앞서 소개하였던 지난 100년간을 커버하는 장기통계가 정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주제별로 각 시기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나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이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지, 다시 말해 종적 및 횡적인 비교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고찰을 제1부에 배치하여 한국경제의 큰 흐름을 먼저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전체 시기를 7개로 나누어 고찰합니다. 시기 구분은 해방 전은 개항기와 식민지기로 나누되, 식민지기를 다시 제도변화가 집중되었던 시기와 식민지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었던 시기로 나누어 고찰합니다. 해방 이후는 1950년대까지의 시기와 1960년~1970년대의 고도성장기로 나누고, 1980년대 이후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계로 하여 다시 두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각 시기가 처한 국내외 상황이나 안고 있었던 문제 또는 과제가 달랐고, 그에 대응하여 시행된 제도와 정책에서도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시기가 어떤 사회였고 어떻게 변천되어왔는지를 드러내 보이고자 합니다. 제1부와 제2부를 종합하면 한국경제 성장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성장사>의 첫 번째 강의로 '경제성장사를 보는 시각'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거시경제와 성장의 원천'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1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economic growth

1-1

World history through the lens of GDP per capita

Hello students, I am Kim Nak Nyeon, teaching the History of Korean Economic Growth. It is a pleasure to meet you all. For the first lecture in this series, we will explore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economic growth.

This lecture will cover the history of Korea's economic growth, starting from the opening of Joseon's ports to the present. The forced opening of its ports constituted a major shock that set the traditional Joseon society on the path to modernity. Joseon was later annexed by Imperial Japan and subjugated as a colony; near the end of this period, it experienced a system of wartime economic controls.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zation, the two Koreas diverged, and two new states were created: North and South Korea. The North adopted a socialist system, while the South adopted a capitalist system.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in systems,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during each period. In this respect, since the opening of its ports, Korea has been unique in that it has been host to several institutional experiments throughout its history. As a result, I think contemporary Korea's history is unprecedented in that it can illust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ystems and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Korea, a late developer (or latecomer), also exhibit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its economic development than early developers. Late developers can acquire technology and knowledge, accelerating economic growth and producing a “catchup” effect. As a result, Korea narrowed the gap with early developers, especially during rapid growth, and currently, its per capita GDP is close to levels seen in advanced economies. However, not all late developers can narrow the gap with early developers.

Many developing countries have yet to close the gap with early developers; in fact, in some countries, the gap has only widened. Determining how countries such as Korea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how they caught up, and their differences with countries that were unable to catch up is topic worthy of exploration. In this lecture series, we will seek answers to these questions.

In Week 1, starting from this critical mindset, I would like to briefly introduce the existing discourse on institutions,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backwardness and catchup. I hope that this lecture will illustrate the different perspectives used to approach the history of economic growth in Korea.

Before we begin, I will first outline the history of global economic growth, including the history of economic catch-up in East Asia using long-term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GDP) data from major countries. Finally, I will briefly introduce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lecture.

Korea’s national account statistics were first compiled after World War II, and efforts have been made to extend this retrospectively to earlier periods. These data are compiled in the Maddison statistical database. Data on long-term trends, such as national GDP, population and GDP per capita, can be obtained from this database. Since GDP per capita is a representative indicator of living standards, this indicator can provide insight into the differences in living standards between countries and how living standards have changed.



Figure 1-1 illustrates the GDP per capita for East Asian countries since 1700, along with the GDP per capita of the Netherlands, the UK, and the US. GDP per capita for each year is noted in terms of 2011 US dollars.

These statistics were compiled to make comparisons across time and space. For example, 100 years ago, in 1922, the GDP per capita of the US was USD 10,000 in 2011 dollars. However, it was only in 1987 that Korea reached this same level.

Although comparing living standards across countries at different points in time is an interesting exercise, there are complex technical issues that follow. This issue will come up later. But here I will explain the results, illustrated by some examples.

The Netherlands was the most productive country before Great Britain emerged as the preeminent global power through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US succeeded Britain as the world's dominant nation by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t remains a global leader today. GDP per capita in East Asian countries was initially very low in the early modern period. But after the Second World War, many East Asian countries saw their GDPs soar, and several caught up to the developed countries.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f the long-term GDP per capita trend is expressed on a normalized scale, the farther back we look, the more understated the changes seem. For example, if GDP per capita is 100, a five-percent increase is an increase of five. But when GDP per capita is 1000, a five percent increase is an increase of 50. In other words, although the rate of growth (five percent) is the same when expressed on a normalized scale, the earlier increase appears smaller than the latter, since, in absolute terms it was an increase just one-tenth of that of the latter.

Figure 1-2 transposes GDP values onto a logarithmic scale. In this case, the scale increases in tenfold increments, from 500 to 5000, to 50,000 USD, and the slope of the graph shows the rate of increase.



In Figure 1-2 then, a steeper slope in the graph means a higher rate of increase, while a more gentle slope indicates a lower rate of increase. The absolute values can be compared to the growth rate. A negative slope refers to recession or negative economic growth. Figure 1-2 differs in several aspects compared to Figure 1-1, but it is, as a whole, more appropriate to refer to Figure 1-2 when comparing long-term trends in GDP per capita.

The Netherlands was the world's most productive economy throughout the 18th century, but was ultimately passed by Great Britain in the early 19th century. For both countries we have well-established data, including yearly per capita GDP data, but for other countries, this is not the case, and GDP per capita for many years cannot even be estimated.

For example, in the case of Korea, it is difficult to estimate per capita income for years preceding 1911 due to a lack of statistical data. However, we can see the figures for 1820 and 1870 circumscribed in red. These figures represent logical estimations based on the Maddison database. That is, they are guesstimates. Some years for Japan and China are also encircled in purple and green, but these are only rough estimates due to a lack of data before the 19th century.

Considering these points, when comparing East Asian countries, we can see that GDP per capita levels in Korea and China in the 19th century were similar but higher in Japan than in Korea or China. In the early 18th century, China was ahead of Japan in terms of GDP, but Japan had passed China by the second half of the century.



How different were the living standards in China and Western Europe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Great Britain? Pomeranz in 2002 contend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regions in terms of living standards, because both regions were overpopulated and faced resource constraints. However, the discovery of the New World and an abundance of natural resources such as coal brought about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Great Britain. After this, the difference in living standards began to widen.

Figure 1-2 shows that in the late 18th century,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 Britain's per capita GDP was already three times higher than China's. This gap grew eight times over by 1900; by the 1960s, GDP per capita in Britain was 12 times that in China. The gap with the US was even wider.

The first East Asian country to begin to catch up with the West was Japan. Although not shown in the graph, Taiwan was the next to catch up, followed by Korea. But China's economic growth was truly unprecedented. Moreover, the shock of World War II had a significant impact on Japan, which, defeated in war, saw its GDP plummet.

In addition to the war, Korea was impacted by the shock of liberation and division. And while France and the Netherlands were both major battlefields in the Second World War and saw a significant decline in GDP per capita, both achieved a rapid recovery after the war. The US, which was not a major battlefield, and played a unique role in the war, actually saw an increase in GDP per capita and a subsequent decline after its conclusion.

What is noteworthy in Figure 1-2 is that East Asian countries not only recovered quickly after World War II, but also caught up to Western European countries at an extremely rapid pace. For example, Japan had already caught up with Britain by the early 1970s, but growth slowed in the 1990s. Likewise, Korea's development trailed Japan's, but GDP per capita eventually closed the gap with We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France, the UK, and Japan.



Although China started to develop later, it rapidly closed the gap with Western Europe. In comparison, the GDP per capita of North Korea was higher than in South Korea before the war, but after the war growth rates began to deteriorate and ultimately regress. As a result, North Korea's GDP per capita levels are below their pre-liberation levels.

As East Asia rapidly caught up with Western Europe, how South and North Korea diverged and ultimately took entirely different paths is an anomaly in world history. This phenomenon has drawn much attention. Exploring how this was possible has become a fascinating line of research inquiry.

We can see in Figure 1-2 that in 2018, Korea's per capita GDP sat around USD 38,000, nearly identical to the figures in the UK, France, and Japan. Normally, the GDP per capita for each country is converted into dollars by dividing the GDP per capita in the country's currency by the exchange rate versus USD.

When comparing the living standards of different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differences in price levels. This is because that, even if USD-denominated per capita GDP is high, higher prices limit the number of products or services that can be purchased.

Purchasing Power Parity (PPP) reflects differences in countries' price levels of each country, which are then converted to dollars by dividing the GDP by PPP instead of the exchange rate. Prices of non-tradable services are higher in developed countries than in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of this, GDP per capita in developed countries is lower when converted to PPP than when divided by the exchange rate, and higher in developing countries. When using the exchange rate method, Korea's GDP per capita falls short of the UK, France, and Japan, but is closer to these countries when converted to PPP, because PPP reflects the differences in the prices of each country.



However, we can see how prices have changed. Each country's national statistics office surveys the prices of goods and services to compile a Consumer Price Index (CPI), by which price changes can be tracked. But it becomes more difficult to formulate PPP given the different price levels in each country because it is difficult to compare goods and services of the same quality across countrie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known as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 (ICP) has investigated this issue on several occasions since 1970 and has calculated PPP for ten countries. However, such information is unavailable for earlier periods in the Maddison database. Also, the ICP initially produced estimates for only ten countries.

Considering various data limitations, the Maddison database uses PPP from the 1990s to formulate a per capita GDP indicator that reflects differences in the price levels of each country. Whereas previously, extensions were made through the growth rate for each country's real GDP per capita. After the 1990s, 2011 PPP was used to adjust for differences in price levels.

This method assumes price levels in each have remained consistent over time, based on price levels in 1990, which were used as a benchmark.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price level estimates may not accurately reflect actual levels the farther away they are from the benchmark.

Now we will explore data on Korea in the Maddison database. National Accounts data on GDP and other statistics have been compiled by the Bank of Korea since 1953. Any data prior to this year are based on estimates. The first modern statistical surveys in Korea were conduct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A census was conducted on the population, and production and trade statistics were compiled for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roducts. In addition, using various survey results on the product input information, it is possible to estimate GDP through data on production and outlays using the UN's System of National Accounts.



The first study to make such an estimate was conducted by the Hitotsubashi University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 Japan. It issued a report on the economic statistics of former Japanese colonies in 1998, and for a long time the data therein were used as a reference for data in the Maddison database. The Nakseo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later pursued a line of inquiry that sought to produce estimates of pre-liberation national account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project was a book by Kim Nak Nyeon, yours truly, released in 2006. Titled Korean Economic Growth, 1910 to 1945, the work was initially published in Korean and later translated into Japanese and published by Tokyo University Press through the Hitotsubashi University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s the National Economic Estimates of Colonial Joseon, 1910 to 1945.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this report, the data were further subdivided into North and South Korean data and post-liberation data. Finally, the attempt to link the data with post-liberation resulted in the publication of the 2012 book Korea's Long-term Statistics: National Accounts by Kim Nak Nyeon. .

periods was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the economic sector but also the social sector. These efforts resulted in the publication of two 2018 volumes: Korea's Long-term Statistics I and II, by Kim Nak Nyeon, Park Ki-joo, Park Yi-taek and Cha Myung-soo. A version of these works was translated into English as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 The attempt to establish long-term data that covers both the pre- and post-liberation and published in 2022. This progress was reflected in the Korean data used by the Maddison database. Korea's long-term data presented in this lecture will be based on these works.

Previously we looked at trends in GDP per capita for a few selected countries. Figure 1-3 shows the global and regional average trends using the Maddison database. Regional or world averages often rely on guesstimates. However, I do not think this is a major problem, and can help us understand overall trends.



To begin with, average per capita GDP of the world economy is represented by a black solid line and circles, increasing around 13.8 times over, from USD 1,102 in 1820 to USD 15,212 in 2018, based on 2011 dollar values. Over the past 200 years, we can see that GDP per capita grew 25.3 times in Eastern Europe, 21.4 times in the Western Offshoots (referring to North America and Oceania), 18.9 times in the Middle East, and 17.2 times in Western Europe. Here, Western Offshoots refers to countries formed by migration of Western Europeans, such as North America,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African GDP per capita grew by 4.4 times, and Southeast Asian GDP per capita by 8.4 times. However, these regions are below average in terms of development. GDP per capita in Latin America and East Asia increased by 14.8 and 15 times, respectively, which is considerably higher than the global average.

Breaking these data down by period allows us to observe divergent growth patterns. GDP per capita for the Western Offshoots is the highest throughout the observed period, followed by Western Europe. But a gap between the two regions began to open up leading up to the First World War, and it widened even further during the Second World War. It has since begun to narrow. This owes to the fact that no major battles were fought in the Western Offshoots, and so they remained relatively unaffected by the wars.

In addition, the gap between Western and Eastern Europe has fluctuated over time. In the 19th century, Eastern Europe rapidly closed the gap with the West that had first opened up in the wak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But we can see that the First World War and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 in the 1990s dramatically widened the gap. Many Eastern European countries are joining the EU, and closing the gap with Western Europe. Meanwhile, we can also see that GDP per capita in Latin America has not drastically diverged from the global average over the past 200 years.



In contrast, growth in other regions remained stagnant until the 19th and 20th centuries, a time during which Western Europe opened a considerable lead over the rest of the world. But since the 1960s, East Asia's growth rate has accelerated, closing the gap with and eventually overtaking the global average; we can see that global growth has failed to reach the performance of Japan or Korea (see Figure 1-2). Moreover, other regions' per capita GDP levels have also failed to meet the performance of those two countries.

Indeed, if we broaden our scope to analyze all of East Asia, we can see that, despite Korea and Japan having caught up to the West, overall growth has been much more modest. This is because regional data is more susceptible to changes in China, which has an overwhelmingly large share of the population of East Asia. Moreover, North Korea and Mongolia are also included in East Asia's average. South Asia and Southeast Asia, two other densely populated regions, also started to develop slowly, well behind the East Asian countries, and growth in these regions has only now begun to outpace the world average.

The Middle East narrowed the gap in per capita GDP with the world average before Asia. Moreover, the Middle East has been able to outperform Asia in recent years, but this is because several oil-producing countries are located in this region. Finally, although there is a lack of data on the African region, there was a time when GDP per capita was higher than in Asia after World War II. Still, from 1980 to 2000, growth in this region was stagnant, and Africa was the world's worst-performing region.



1-2

The catch up of East Asian countries

In the previous section, we briefly surveyed world economic history using per capita GDP data extracted from the Maddison database. Now we will focus on East Asia and take a closer look at changes in per capita GDP catchup since the 20th century.

Figure 1-4 shows East Asian countries' GDP per capita levels on a scale of zero to 100, with US GDP per capita set as 100, using the Maddison database. The UK is also included for reference. We can see much volatility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but all three East Asian countries graphed can be seen to stabilize at levels between 80 and 70 percent following WWII. We compare the per capita GDP of these countries with the US because the latter was the global leader in economic productivity postwar.

Before World War I, Japan's GDP per capita was just a quarter of that of the US. But this gap had narrowed to 30 percent in the 1920s and 40 percent in the 1930s. But the gap began to widen again after Japan's defeat in the Second World War, falling to 19 percent.

Taiwan shows a similar trend to Japan. Before the first World War, Taiwan narrowed the gap from 13 percent of the US GDP per capita to 21 percent by 1930. But GDP per capita fell to just 10 percent of US levels after WWII. Korea's case was no different. From the early 1910s to 1930, Korea narrowed the gap from 12 percent to 17 percent. But following war, liberation, and division, Korean GDP per capita was just six percent of that of the United States.

The reason why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show a similar trend is that they were all connected through a regional integration scheme as parts of the Japanese Empire. Before the war, Japan and its imperial possessions Korea and Taiwan were catching up to developed countries and growing faster than the US.



After World War II, Japan caught up at an astonishing speed, with per capita GDP rising from 19 percent of US levels immediately after the defeat in the war to 65 percent by 1970. Since then, the rate of catchup has fallen, and the gap with the US has even reopened after peaking at 85 percent of the US GDP in 1991. The years that followed are known as the Lost Decades. Japan's gap with the US currently hovers around the 70 percent level.

Taiwan started to catch up later than Japan, but it has continued to grow up to the present, with per capita GDP levels reaching 81 percent of US levels. After 2009, per capita GDP levels in Taiwan surpassed those of Japan. Korea started to develop later than Taiwan, and until 1967 its per capita GDP levels were only 10 percent of US levels. But after 1967, Korea rapidly caught up to developed countries, and per capita GDP levels sit around 69 percent of US levels. In 2018, Korea and Japan were at a similar level vis-a-vis the US, but recently updated data indicates that Korea will surpass Japan in terms of PPP. North Korea's per capita GDP is only three percent of the US per capita GDP. It has not yet reclaimed pre-liberation levels.

This analysis raises several more questions. For example, why did the economic growth of East Asian countries (excluding North Korea) show a similar pattern in the 20th century, despite some time lag? Before liberation and the war, catching up to the US progressed slowly, but rapid catchup was achieved after the war during a period of breakneck growth. What factors can account for this difference between the two periods? And why did the gap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and the US widen dramatically during wartime?

East Asian countries experienced significant postwar political turmoil and underwent major institutional reforms. But why did Korea and Taiwan start to catch up later than Japan? Moreover, Japan, which developed before Korea, has lost ground with the US since 1992. Will Taiwan and Korea soon follow in Japan's footsteps? And why did North and South Korea exhibit similar growth patterns before liberation, but take completely different paths after? We will explore these and other questions.



1-3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The questions I have raised so far on East Asian per capita GDP catchup in the 20th century concern only a handful of the issues I hope to address through this series of lectures. I think a theoretical discussion on how to approach these problems is necessary. I would like to address the issues of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and later, other themes such as economic backwardness and catchup.

Shortly after the ports of Korea were forced open, it was subjugated under colonial rule. Following liberation, Korea experienced a major systemic change: it was divided into two states, North and South, and during this process,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hanged. Normally, it is not easy to ascertain institutional differences accounted for differences in economic performance, or whether environmental or historical conditions played a more important role in two different countries with different institutions, environments, and historical conditions.

But the case of Korea allows for isolation of the effect of institutional changes, with environmental and historical variables equally controlled. I had this in mind when I mentioned earlier that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is like a lab experiment for testing institutions.

I would like to briefly introduce previous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Also, I will look at how modern institutions that originated from the West spread to other parts of the world. Based on this, we will think about how institutions affect economic growth.



o begin with, I will introduce a 1973 study by North and Thomas. The work asks why economic growth, defined as a continuous increase in per capita income, was first observed in the Western world, and why this was not also observed in other regions. They argue that growth occurred in the West first due to its more efficient economic institutions.

We might think that there are many ways to achieve economic growth. They include developing technologies, raising the quality of capital or labor inputs in the production process, or pursuing economies of scale through forming large organizations such as companies.

However, technological development, wealth accumulation, education and economies of scale are not causes of economic growth but rather the things that define it. Therefore, we should ask why these factors became manifest in some societies but not in others. North and Thomas argue that it is due to the presence of efficient economic institutions (or lack thereof).

They consider establishing property rights an essential element of an efficient economic institution in which individual costs and benefits are closely tied to social costs and benefits. When the two concepts are unlinked, a third party can take part in the benefits while passing on the costs to either of the concerned parties without their consent. This occurs when property rights are not properly established or protected.

The concept of the externality is an important one in economics. It refers to a circumstance in which a third party (that is, an entity other than the parties directly engaged in a transaction) is not compensated for any losses it suffers or paid for and gains achieved as a direct result of the transaction between the other parties. Therefore, a world without externalities would be one in which property rights are fully guaranteed.



In such a world, economic growth could occur on its own. This is because people with materialistic desires are provided with strong incentives to be compensated for their contributions. As a result, the effort of individuals leads to an increase in social as well as individual benefits. However, this ideal world does not exist, nor has it ever existed.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there are many obstacles to protecting or enforcing property rights.

I will describe two examples used by the authors. First, let us say that an individual invents a new technology that would benefit society.

If the invention is freely copied and used by other people, who free ride on the work of the inventor, the individual who originally invented the technology would not be able to recover the costs of developing the invention, let alone earn a profit from the invention. And without these incentives, any successful invention would likely never be made again. The system of patents does not come into existence naturally. It is an artifice designe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out these systems, technological innovation cannot be expected to take place in earnest. And so, Thomas and North argue that, without institutions to protect property rights, technological innovations cannot be expected to occur.

Another example used by the authors is when the king of Spain granted privileges to Mesta, a shepherd's guild in the early modern era. Mesta was granted the right to herd sheep, but these sheep damaged the crops of farms they passed through. This represents a clear violation of the property rights of farmers; their rights were not protected.

Here, let us assign a quantitative value of 100 to the loss incurred by the farmers and a profit of Mesta 40, who pay 20 to the king in exchange for the privilege of being allowed to herd sheep. The farmers' losses were total, valued at 100, and greater than the sum of profits earned by both Mesta and the King. This is a socially inefficient system.



If the privileges granted to Mesta were to be abolished, and instead, the property rights of the farmers were protected, society would benefit. But changing such a system would be an enormous challenge. Mesta would suffer losses, and the king would have to collect taxes from farmers instead. But agricultural profits are not certain, and the risks are large.

Yet if the institutional changes did occur, the farmers who benefited from the change could pool 40 to compensate Mesta and the king's previous income, but this would not be feasible. This is because it would be difficult to know much each farmers had lost from the sheep grazing, and it would be difficult to arrive at a consensus on how to share the burden of 40 amongst them, as they would have incentives to free ride on each other.

These two cases illustrate why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efficient institutions, why inefficient institutions persist, and why these two problems can make economic growth impossible. When establishing property rights, it is important to prevent free riding. But this is difficult for individuals or groups to do. And so normally the state takes on this role.

In medieval Europe, feudal lords ruled in a decentralized manner over small regions, but in the early days of the modern era, nation states emerged that united these feudal lords, and these states took on the role of creating public goods. Public goods such as national defense and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have economies of scale, which means that the cost per unit of each decreases as scale increases.



However, there was never a guarantee that the nation-state would establish property rights in a way that contributed to economic growth. And in fact, the opposite was most often the case. Because of the competition between nation states and frequent wars, the heads of these states (often kings) always lacked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As a result, privileges such as those granted to Mesta were abused. Special privileges were granted to specific people or groups for virtually all commercial and manufacturing goods.

Kings relied heavily on borrowed funds from large merchants, but often failed to repay them. North and Thomas see Spain and France as examples of economic decline or stagnation due to the state's failure to adequately protect property rights during the emergence of the first nation-states from 1500 to 1700.

In contrast, the Netherlands and the UK are cited as successful examples of economic growth. The Netherlands emerged as the maritime trade and commerce center during this period because of innovations that lowered transaction costs. In a time when markets were less developed, ascertaining the true value of goods being traded, negotiating the terms of trade, and resolving trade disputes were all costly and entailed uncertainties. These costs included search and information costs, bargaining costs, and policing and enforcement costs, which ar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ransaction costs.

Economic principles teach us that market equilibrium is formed when supply meets demand, but elementary modeling exercises assume zero transaction costs.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in reality, and if transaction costs are higher than the profits obtained through any transaction, the transaction will not take place.



If uncertainties can be mitigated and costs of transactions reduced, trade can expand, and the division of labor can widen, leading to economic growth. Such a process of development occurred in the Netherlands during this time. With an increase of trade volume, specialized exchanges and standardized business practices were established, and a system was created where commercial disputes could be appealed in court to ensure contracts were enforced.

The development of commerce brought about innovations in shipping and specialization in agriculture and manufacturing, which increased production.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s supported this process. As a result, the Netherlands enjoyed an affluent standard of living, only being eventually overtaken by Britain at the turn of the 19th century, as shown in Figure 1-2.

Although Great Britain started to develop relatively late, it actively adopted and imitated the institutions and technology of the Netherlands. Furthermore, Britain added a new institutional mechanism to protect intellectual rights by adopting a patent system. This greatly contributed to accelera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It is worth calling attention to how, through the Glorious Revolution in 1688, Great Britain recognized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ism, which stipulates that the Crown is subject to the law. Research by North and Weingast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this development.

Compared to Spain or France, in Britain, the Crown's authority was subject to more checks from the legislative body, Parliament. But these did not prevent the Crown from abusing its authority to levy taxes. The Crown and Parliament frequently clashed over tax increases. Still, the Glorious Revolution established the notion that the monarch is not above the law, and thus began an era of Parliamentary priority over the Crown.



Parliament eventually assumed fiscal authority, and without its approval, the government could not levy taxes; it also assumed the right to audit government expenditures. In the judicial system, the Crown's privilege was abolished, the supremacy of common law was established, and the status of judges was guaranteed, making the judiciary independent from the Crown. This meant that the people had more political freedom and rights, which ensured greater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freedom.

The Glorious Revolution was followed by the Financial Revolution. In the past, Royal violations of property rights were often triggered by financial crises, making it necessary to resolve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 Supporters of Parliament agreed to allow the government to improve its finances through tax increases in exchange for more say in the government. As a result, government debt increased, while interest rates for British government bonds, called gilts, significantly fell. The interest rate on gilts was 14 percent in 1693 but had fallen to just three percent by the 1730s.

Developments in financial markets showed that this new system was not only predictable but also credible. This stabilization of the market for gilt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s, leading to a decrease in interest rates of private securities.

Falling interest rates encourage capital accumulation by expanding the scope of profitable investments. Although the institutional changes from the Glorious Revolution had various effects on economic growth, the authors focused on its effects on capital markets to illustrate the revolution's significance more concretely

Up to this point, we have focused on our discussions on the cases of Great Britain and the Netherlands. From those two cases, it seems that efficient institutions centered on protecting property rights have indeed positively impacted economic growth. However, the extent to which this can be generalized needs further scrutiny.



In general,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institutions are a major contributing factor to economic development, we can make estimations using a model for economic growth that utilizes variables representing the quality of institutions. Institutional quality is measured here through surveys on how well countries protect against violations of property rights. This variable will have a higher value in countries that do this better. Here I will introduce the research of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But before I do that, here is a brief primer on statistical estimation. Suppose Y refers to each country's per capita income or growth rate. In that case, X indicates the quality of institutions, and Z is a combination of all other variables that affect the per capita income. Then, we can build a model expressed by the formula $Y=a+bX+cZ+e$. Here, e indicates the error term. I will refer to this as Formula 1-1.

From this model, we can estimate the effect of institutional quality on per capita income. In other words, for countries for which we have data,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ces from variable Z — which explains the difference in per capita income coming from factors unrelated to institutional quality — we can estimate the difference in the model economic growth attributable to variable X , which represents institutional quality.

If the coefficient value b of X is positive (+)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xample, the probability of it being incorrect is less than five percent), it can be interpreted that a country with higher institutional quality will have a higher per capita income. Conversely, if c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t would be difficult to claim that institutions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In this exercise, institutional quality is the explanatory variable (also called the independent variable). X represents it. Let us say running Formula 1-1 finds X to impact the explained variable (also called the dependent variable) Y , representing per capita income. But there is also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where an increase in Y leads to an increase in X . Because many other factors impact institutional variables, it is difficult to rule out the possibility of an inverse causal relationship. So, in this case, the model suffers from the problem of endogeneity, which refers to the explanatory variable, which in this example is institutional quality, being correlated with the error term, which again refers to all other variables and represents by e in Formula 1-1. An endogeneity problem makes it difficult to interpret the results of an estimation easily.

But suppose we can find the value of another variable, D , which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variable X but lacks any correlation with variable Y . In that case, we can estimate the value of X using variable D . The value of this variable is referred to as \hat{X} (called x-hat). Using this variable instead of X to estimate the value of Y can avoid the inverse causation problem. This variable D is referred to as an instrumental variable, and this estimation method is referred to as the two-stage least squares method or instrumental variables estimation.

Using this estimation method,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s research concluded that differences in institutional quality led to differences in economic performance. In addition, the authors hypothesized that the mortality rates suffered by European settlers influenced colonization settlement strategies and governance.

Therefore, in colonies where mortality rates were low, more Europeans migrated to these regions, resulting in an establishment of better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Conversely, in colonies with high mortality rates, it was more likely that the colonial powers put institutions in place that exploited these colonies.



They argued that the institutions and systems established by European colonial powers persisted in some colonies even after they won their independence and that these institutions continue to influence the affairs of these countries today. The authors sought to prove this hypothesis using the instrumental variables estimation methodology I described earlier. First, they showed that differences in mortality rates faced by European settlers (the instrumental variable, D) during the colonial period could be used to estimate differences in current institutional quality. They then showed that the result of this estimation could explain differences in economic performance between former colonies on a statistically-significant level.

The sample size used for this estimation was 64 countries. Therefore, it could be implied from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at having institutions that protect property rights promotes economic growth. This is generally true in many countries, not just Great Britain or the Netherlands.

Another issue is how the effective system centered on property rights protection was first established in Great Britain and eventually spread to other regions. Earlier, I pointed out that Britain adopted or imitated the institutions and technologies of the Netherlands, but I think this development path was important for neighboring countries as well. However, under the old system of absolute monarchy, it was difficult for these nations to adopt a modern system voluntarily conflicted with the absolutist rule, and doing so often involved political transformation.

The French Revolution in 1789 is an example of this. The French Revolution, like the Glorious Revolution and the 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1776, was influenced by the ideologies of the Enlightenment. In particular, the 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greatly inspired French revolutionaries, as it demonstrated that revolution was possible from the bottom up. It also showed that a new political system based on Enlightenment ideologies such as national sovereignty, natural rights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using constitutional checks and balances was possible.



The French Revolution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two revolutions in that it emphasized the values of liberté (freedom), égalité (equality), and fraternité (camaraderie). However, the republic established following the revolution underwent upheaval and suffered from political instability, producing the Reign of Terror, the dictatorship of Napoleon Bonaparte, and ultimately restoration of the monarchy.

The French Revolution was notable because of its revisions to and dissemination of institutions, especially the Napoleonic and French civil codes' legacies. Before the revolution in France, the legal system comprised a mix of Roman law, feudal law and other customary and common laws depending on the region. Marriage and family law we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The Revolution unified these laws and practiced the principle of equality by applying the same laws to all French.

In addition, hereditary nobility and privileges were abolished, granting freedom of religion and secularizing the country by separating church from state. Finally, basic principles were adopted, including the right to liberty, the right to enter into contracts,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and the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These epitomize the laws governing modern civil society and, as North and Thomas argued, are at the core of efficient institutions.

The success of the French Revolution was a great threat to the monarchs under the old system in other European countries. This is because they were concerned that the revolution would expand to their lands. The Napoleonic Wars, which were wars between France and the countries trying to prevent this from occurring, were fought from 1803 to 1815. In this process, Napoleon occupied or conquered many parts of continental Europe. During this time, the old system collapsed while nationalism grew ascendant. The Napoleonic Code spread to these regions.



In the case of Germany, the Napoleonic Code was adopted alongside old customs and common laws in areas that were occupied by France. After unification, Germany enacted a civil code of its ow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hich was systematized based on Roman Law and the spirit of individualism and liberalism prevalent in Europe at the time. In Switzerland,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n independent Civil Code was enacted. It drew from the Napoleonic Code as well as German civil law.

These civil laws were statutory laws, drafted under the premise that they would constitute part of a rational legal system. And in this way they differ from the common law used in Great Britain at the time, which was based on unwritten customs and judicial precedent. This established a distinctly continental approach to civil law which differed from the Anglo-American common law tradition.

How did modern institutions spread outside of Europe? Although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did not address this question, it can be said that European colonial rule was an important trigger for the spread of institutions to other regions.

The British common law tradition spread to North America, Australia, New Zealand and India, which are all former British colonies. On the other hand, Latin America and Africa, which were colonized by continental powers, inherited civil law systems. Although there are cases where European institutions were directly transferred to colonies nearly as-is, I believe it is more common that continental institutions were modified through conflict and fusion with existing institutions. In either case, it can be said that external forces forced European institutions upon the colonies.

But there are a few cases where societies voluntarily adopted European legal systems. Japan is one such example. The Japanese Civil Code was enacted in 1896 during the Meiji Restoration. It was modeled after the civil laws of Germany and France. We will examine the case of Korea in more detail later, but the Japanese civil code was applied to Korea in 1911, as the latter was at the time a colony of the former.



Although there were cases where the spread of modern institutions was achieved through imitation, there were many more cases where modern institutions only came to be after a revolution, war, or a period of colonial rule.



1-4 Economic backwardness and catch up

So far, we have seen that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quickly closed the gap with the US, the global productivity leader. In these countries, catchup was achieved surprisingly rapidly during stupendous growth after World War II. But this growth progressed much more slowly before the war. So let us think about how this catchup was possible and what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se countries made it so.

To explore this issue, we should first consider the significance of the theory of economic backwardness proposed by Guschenkron. He noted that France, Germany and Russia, which were relatively backward countries in Europe in the 19th century compared to Great Britain, all eventually went on to post rapid economic growth and also exhibited characteristics that Great Britain did not have in terms of industrial production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Guschenkron uses the term “backwardness” but refers to relative backwardness compared to Great Britain, rather than absolute backwardness. Given the ambiguity of this term, I will from here on use the terms “late developer” and “early developer” instead to differentiate Great Britain and the countries that developed after it.

The author points out that a characteristic of late developers is that they can borrow technologies already developed by the early developers. This can be said to be a benefit of developing late, and because of this, once industrialization commences in a late developer, it is likely to proceed rapidly.



But late developers also faced obstacles to industrialization. Contrary to the general perception that labor is more abundant than capital in developing countries, Guschenkron points out that late developers lacked suitable factory labor, as workers needed to sever ties with their lands and undergo training to be suitable for factory work. But this kind of labor was surprisingly scarce. At the same time, late developers lacked capital and managerial resources as well.

In addition, complementarities among industries also functioned as constraints that prevented industrialization. For example, it isn't easy to develop a railroad industry without a coal industry to supply fuel, and conversely, a coal industry needs railroads to transport coal efficiently. The development of one industry can create a positive externality in another, which can spark additional development of the former.

It is effective to promote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of industries with complementarities, and doing so can lead to rapid growth in late developer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for late developers to do this due to their challenges: a lack of labor, capital, and managerial expertise.

Regarding the lack of labor, it can be pointed out that late developers were more active in introducing technologically advanced production facilities. These production facilities are usually capital-intensive, meaning that they can save on scarce labor.

On the other hand, since early developers have already made large investments in production facilities, they tend to be hesitant to replace them with newer ones. For example, Germany introduced blast furnace technology in the steel industry before Great Britain. Even more backward than Germany compared to Great Britain, Russia embarked on Germany's developmental path.



Notably, in capital financing, late developers established a financial system that did not exist in early developers. For example, British banks of the time were mostly commercial banks that supplied short-term financing to firms through discounts on promissory notes that companies issued. In contrast, banks in continental Europe (including Germany) became investment banks that offered short- and long-term financing to companies for railway construction or industrialization.

In Great Britain, incorporated firms were not properly utilized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but corporation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industrialization of late developers. In particular, in Germany, banks not only became larger through mergers, but also went so far as to organize cartels that could command and control industrial enterprises that were owned by these industrial banks.

This made it possible to supply large amounts of capital to capital-intensive industries. But, on the other hand, Russia was even more backward than Germany before its industrialization; serfdom was only finally abolished in Russia in 1861. As a result, Russia faced far more obstacles to promoting industrialization and mobilizing funds, and its financial system was not up to this task. And so the state took on a more direct role.

Guschenkron argues that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industrialization of late developers was the role of industrialization ideology. He suggested that for late developers to scale the barriers that had long prevented them from industrializing, mere rational discourse on the benefits of industrialization was insufficient. Rather, these countries had to pursue industrialization with quasi-religious fervor; a belief that a better future was possible with the power of human imagination. Guschenkron thus proposes that it was industrialization ideology that united national capacity for economic development.



In France, the ideologues were Saint-Simonians; in Germany, the democrats, and in more backwards Russia, the Marxists. These groups played the role of ideologues for industrialism. Guschenkron points out that among European countries in the 19th century, late developers started industrialization at different points in time, and the degree of backwardness of late developers had a major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path of these countries.

The author's next argu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more backward a country is when it first begins to industrialize, the faster its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grow, which causes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to proceed in fits and starts. In addition, the greater the level of backwardness of a newly-industrializing country, the larger the scale of the firms and production facilities that eventually come to be. Moreover, these enterprises tend to focus more on producer goods (that is, intermediates, or unfinished goods) rather than consumer goods. This reduces consumption and increases pressure on the savings rate.

Furthermore, as we have seen earlier in the cases of Germany and Russia, Guschenkron posits that the greater the level of a late developer's backwardness, the greater the role played by newly-created institutions designed to supply the necessary capital for industrialization, and these institutions were often not present in the early developers. He also mentions that agriculture plays a smaller role in providing capital for industrial growth in more backward countries.

Guschenkron's hypothesis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which argued that economic development occurs in a linear way, because late developers follow a different development path from early developers due to the very existence of these early developers. As Marx said, "The country that is more developed industrially only shows, to the less developed, the image of its own future." Rostow later contended that each country's economy goes through five stages of development: traditional society, the preconditions for takeoff, the takeoff, the drive to maturity and the age of high mass consumption.



According to Rostow, then, every country's economy should belong to one of the five stages I just mentioned, and late developers would follow the development stages that early developers have already passed through in a linear way. But Gerschenkron diverged from the other economists here, maintaining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late developers takes a different form from that of early developers, due not only to the backwardness of the former, but due to the influence of ideology and preexisting institutions, which we have already discussed. These factors are key to understand how late developers approach the question of industrialization.

Gerschenkron's hypothesis was predicated on observations of 19th-century Europe. But how far can it be generalized to other periods and regions? For example, one of the author's hypotheses is that the more backward a country is and the bigger its technology gap with developed countries, the more rapidly it can grow and catch up by using technology already developed by early developers.

Abramowitz addresses this argument. Here, the ability to take advantage of the technological gap with developed countries is important. This ability is called social capacity. This includes technological competence, which can be represented by education levels, but social capacity also refers to the competencies of political, commercial, industrial and financial institutions.

Among these, the experience of organizing and operating large-scale businesses 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markets to procure and distribute capital on a large scale is important. However, defining social capacity is an important question that is difficult to substantiate and subject to controversy.



Puterman offers a more comprehensive definition of social capacity. He argues that social capacity is a skill that can be acquired not only through the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that is, through individuals' education or training), but also through collective know-how. This know-how can depend on intangibles such as work ethic, attitudes toward education, social norms, and social trust.

Furthermore, Puterman emphasizes that social capacity factors are formed over a long period, often originating in primal societies. These factors are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ccumulating in families or communities. While this ability cannot be formed quickly, it cannot be easily lost. He posits that late developers lacking social capacity may struggle to catch up with the early developers.

Abramowitz conducted research on 16 countries, using data on per capita GDP since 1870. He sought to test whether countries with lower incomes went on to post higher growth rates. In addition to Britain, the US and major European countries as well as Australia and Japan were included. All of these countries were seen as having sufficient social capacity. The study found that the income gap between the economic leader, the US, and the rest of the world was widening before World War II, but had since narrowed rapidly.

The work also found that the distribution of income within countries (excepting the US) has also gradually evened out, except during times of war, when income gaps widened. And even when estimati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initial income levels and the growth rate, in times of peace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as mostly negative. Among the countries being studied, countries with lower incomes initially posted faster growth rates. However, the correlation coefficient reached -0.9 between 1950 and 1973 but dropped after 1973, showing differences over time.



According to Abramowitz, during World War II, there were many technologies that had already been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in the US, but not yet in other countries. After the war, countries took advantage of these technologies to rapidly catch up. In addition, higher education levels not only improved social capacity but also expanded international trade, which facilitated the spread of knowledge and technology.

After 1973, as the technological gap between nations gradually narrowed, the speed at which later developers caught up also slowed. In the 19th century, catching up was relatively slow,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dominant position of agriculture in national economies and limited social capacity compared to the post-World War II period. In addition, the aftermath of the two World Wars and the Great Depression temporarily hindered the spread of knowledge.

The data used here is based on the GDP per capita of each country using the Maddison database, so it is limited to capturing the rapid growth of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a main focus of Guschenkron. However, this means that Guschenkron's hypothesis on economic backwardness is not only limited to Europe in the 19th century, but can be extended to other periods and regions.

As we have seen, in the process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to the technology-enabled rapid catch up, various factors that can be attributed to initial economic backwardness, such as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dustrialization ideology, are apparent. When expanding and applying Guschenkron's hypothesis, we can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process of Korea's economic growth.



1-5 The structure of the lecture

Finally, I would like to briefly explain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course.

Two approaches can be used when explaining the history of economic growth. One is chronological, in which events are discussed in the order they occurred, and the other is topical, in which various subjects are reviewed separately for a period under consideration.

Both approaches have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Reviewing economic growth chronologically is the most widely used method, and doing so allows us to identify specific problems, the systems and policies implemented, and the economic progress achieved during the period under study. However, this approach limits how well we can understand the larger currents of the entire period.

In contrast, reviewing economic history by topic helps us understand the undercurrents of each subject at a glance using long-term statistics. Doing so allows us to compare countries to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economic growth. However, this limits our ability to comprehensively grasp the nature of the societies we are studying in each period.

This course acknowledges both approaches to be complementary and attempts to practice both. For the first part of this course, we will explore the history of economic growth by topic. These topics included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economic growth, which we have discussed today. The other topics we will discuss include macroeconomics and the causes of development, monetary finance, the formation of human and physical capital, and standards of living and equality. The approach covering the entire period has been made possible due to the compilation of long-term statistics covering the past 100 years.



This allows for a comparison of changes in each period by subject, and furthermore, what characteristics Korea exhibited in comparison to other countries. In other words, it allows for vertical and horizontal comparisons. The results of these comparisons will be discussed in the first part of the course, in order to help us grasp the overall flow of the Korean economy.

In Part 2, the period under consideration is divided into seven different sections. First, the period before liberation is divided into the opening of Joseon's ports and the colonial period. Second, the colonial period is divided into a period when institutional changes were concentrated and a period in which colonial economic development was initiated on a full scale. Third, the post-liberation period is divided into the period up to the 1950s and high growth from the 1960s to the 1970s. Finally, the period after the 1980s is divided into the two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FC).

These classifications for each period considered the domestic and foreign circumstances Korea faced, differences in major challenges, and the nature of the institutions and policies. Through this analysis, we will understand society's nature during each period and how it changed. In addition, combining Parts 1 and 2 allows us to view the history of Korean economic growth from various perspectives.

This concludes the first lecture of the History of Korean Economic Growth. Today we examined different perspectives for analyzing the history of economic growth. In the second lecture, we will discuss macroeconomics and sources of growth.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 1 周

看待经济发展史的视角

1-1

通过人均GDP所观察的世界史

各位同学，大家好。我是担任《韩国经济发展史》讲座的主讲金洛年。很高兴通过这次讲座与大家见面。本节课作为第一节课，我们将对“看待经济发展史的视角”来进行探讨。

这节课我们将介绍从朝鲜开港到现在的韩国经济增长的历史。朝鲜的传统社会受到开港的冲击，开始向近代社会过渡，之后被编入日本殖民统治体制，在其末期还经历了战时统制体制。解放后，南北韩（朝韩）分裂，朝鲜走向社会主义制度，韩国走向资本主义市场经济体制，两者开始走向不同的道路。

而且各个时期的体制和制度不同，在经济成果上也有着很大的差异。从这一点看，韩国在开港以后，诸如进行了多次制度试验一样，拥有了独特的经验。我认为，韩国的近现代史是体现体制或制度和经济成果之间的关系的世界史上罕见的事例，因此备受瞩目。

韩国作为后发展国家，在经济增长的过程中具有与先发展国家不同的特征。后发展国家可以从先发展国家学习技术和知识，从而加速经济增长，从而实现追赶（catch up）。韩国在高速发展时期迅速缩小了与先发展国家之间的差距，可以说目前人均GDP已接近不落后于先发展国家的水平。但是，并不是所有的后发展国家都能缩小与先发展国家的差距。

许多发展中国家仍未能缩小和扩大与先发展国家的差距。因此，在包括韩国在内的形成快速追赶的国家中，探究它们如何实现了高速的经济增长，以及与其他国家存在何种差距，是一件非常有趣的事情。我想在本课中探寻这样的答案。

在第一课的课程中，出于这种问题意识，我想简单介绍一下关于“制度与经济增长”以及“经济落后性和catch up”的现有讨论。由此，我认为通过本节课可以清楚我们将从怎样的角度来看待韩国经济发展史。



在此之前，我们将先利用主要国家人均GDP的长期数据，来概述世界的经济增长史，包括东亚进行的catch up。最后，我再简要介绍本讲座是如何组织的。

各国的国民账户统计数据是在第二次世界大战之后开始制定的，此前一直致力于将其追溯到更久之前以延长数据。将这些数据进行集成的是Maddison的统计数据库。从这里可以得出各国的GDP、人口和人均GDP的长期趋势。人均GDP是反映生活水平的代表性指标，由此可以了解各国的生活水平的差异程度以及变化的过程。

图1-1显示了1700年以来，东亚国家和荷兰、英国、美国的人均GDP。每一年的人均GDP以2011年的美元来表示。

这个统计可以跨越时间和空间进行比较。例如，100年前的1922年，美国的人均GDP以2011年的价格为准是1万美元，而韩国却是在1987年才达到这个水平。

这样比较不同时期国家之间的生活水平很有趣，但其中也伴随着复杂的技术问题。关于这个问题，我们之后再谈，这里先举几个例子来说明其结果。

荷兰是英国通过产业革命成为世界经济的领导者之前生产率最高的国家，英国在19世纪末将其位置让给了美国，美国成为世界经济的领导者的状况便一直持续至今。东亚国家的人均GDP在近代初期非常低，但战后却急剧上升，形成了catch up。

但需要注意的是，如果将长期以来的人均GDP趋势用通常的刻度来表示，与最近的年度相比，越追溯到过去，其变化就显得越小。例如，人均GDP在100时增加5%，增加额是5，而在1000时增加5%，增加额是50。也就是说，虽然增长率都为5%，但在常规刻度上，前者仅为后者的1/10，显得过低。

图1-2是将图1-1的人均GDP转换成对数值的结果。在这种情况下，刻度会上升10倍，达到500、5000、500000美元，图表的倾斜度显示的正是增长率。



也就是说,图表越陡峭,增长率就越高,图表越平缓,增长率就越低,因此可以与绝对金额一起比较增长率。当斜率为负值时,则显示下降率。与图1-1相比,状况有了很大的变化,比较人均GDP大幅变化的长期趋势时,用图1-2看更加方便。

首先,荷兰在18世纪之前是世界上生产率最高的经济领袖,但在19世纪初将其位置让给了英国。英国和荷兰的数据都很齐全,每个年度的人均GDP都有显示,但其他国家有很多年份没有估算。

例如,韩国19世纪以前由于统计数据不足,很难像1911年以后那样进行估算。但是1820年和1870年的数值是用红圈标出的。这可以说是由Maddison在没有足够信息的情况下做出的逻辑推断,即guess和estimate合成的guesstimate。日本和中国分别是用紫色和绿色的圆圈来标记,如果追溯至19世纪以前,由于资料不足包含了粗略的估计。

考虑到这一点,将东亚国家之间进行比较可以得知,虽然19世纪的韩国和中国的人均GDP水平没有太大的差异,但日本要高于中国和韩国,18世纪初中国领先于日本,但在18世纪后期发生了逆转。

在英国工业革命开始之前,中国和西欧的生活水平有何种程度的差异呢? 2002年彭慕兰(Pomeranz)主张,由于这两个地区都在资源的限制下人口已趋于饱和,所以在生活水平上差异不大,但在西欧,由于新大陆的发现和煤炭等自然资源的丰富,导致英国爆发工业革命,随后差距扩大。

对此,从图1-2可以看出,早在工业革命前的18世纪后期,英国的人均GDP就已经比中国高出3倍左右。其差距此后进一步拉大,1900年将扩大到8倍左右,1960年将扩大到12倍。与美国相比,差距则更大。

东亚国家对西欧的catch up早在战前就从日本开始了。虽然图表上没有显示,但台湾紧随其后,其次是韩国。在战前,我们没有看到中国的经济增长。而且,第二次世界大战的冲击在对于战败国日本影响非常大,因此人均GDP急剧下降。



韩国除了战争以外，还受到了解放和分裂的冲击。曾作为战场的法国和荷兰的人均GDP明显下降,但战后恢复也很快。美国没有成为战场，反而因战争特需，战时的人均GDP暴涨，但战后却出现了下滑的对比。

在图1-2中，值得关注的是，二战后东亚国家不仅从战争中迅速恢复，而且对西欧国家的追赶也以非常快的速度进行。结果，日本在20世纪70年代初就赶超了英国，但进入90年代后增长放缓。韩国虽然起步比日本晚，但迅速缩小了与西欧之间的差距，最近与英国、法国、日本的人均GDP水平相接近。

此外，中国更晚一步出发，正在迅速缩小与西欧的差距。相比之下，朝鲜虽然在战前比韩国高，但战后增长停滞或后退，现在连解放前的水平都没有达到。

东亚国家的迅速增长和对西欧国家的追赶,在南北韩（朝韩）表现出截然不同的途径,是从世界史的角度来看也是非常特殊的现象,探究这种状况是如何实现的正成为非常有趣的课题。

图1-2显示，2018年韩国的人均GDP为38,000美元，与英国、法国和日本几乎没有差异。通常各国的人均GDP是将本国货币标示的人均GDP除以对美汇率换算成美元，在这种情况下，韩国的人均GDP比不上这些国家。

但在比较各国生活水平时，有必要考虑各国物价水平的差异。因为，即使以美元计算的人均GDP高，但如果物价水平高，实际可以购买的财物和服务也会减少。

反映各国物价水平差异的称为购买力指数PPP，它可以代替汇率，除以PPP换算成美元价格。发达国家与发展中国家相比，非贸易材料的服务费比较贵，物价水平较高，因此用PPP换算的话，发达国家的人均GDP比用汇率换算时要低，发展中国家则相反会提高。前面所述的韩国的人均GDP换算成汇率时不及英国、法国和日本，但若换算成PPP就会趋于接近，这是由于反映了各国物价水平的差异。



但是,各国统计局对商品和服务的价格进行调查,每月制定消费者物价指数,通过这种方式可以得知物价发生了怎样的变化。对此,通过调查各国的物价水平有多大的不同来获得PPP就会更加困难。因为调查国家之间相同质量的财物和服务并不容易。

关于这个问题,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简称ICP的国际组织自1970年以来进行了多次调查,并根据调查结果制定了各国的PPP。但是,在Maddison统计为对象之前,这些信息是无法被使用的。早期ICP的调查国家只有10个。

鉴于资料上的种种制约,Maddison统计采用1990年PPP的方法求得反映各国物价水平差异的人均GDP,然后将之前的时间追溯延长至各国人均实际GDP的增长率。1990年以后,利用2011年的PPP调整物价水平的差异。

这种方法相当于假设引用了benchmark的1990年各国的物价水平差异在此之前的更早时期一直保持不变。值得注意的是,如果与这个benchmark的年份离得太远,各国的物价水平差异可能无法准确反映出来。

以及Maddison统计中所使用的韩国相关数据。韩国银行的GDP等国民账户统计是从1953年开始制定的,因此之前的时间是根据估算得出。在殖民地时期,与之前的传统社会不同,进行了近代统计调查。对人口进行了普查,按农产品或工业产品类别编制了生产统计和贸易统计。此外,利用有关产品投入信息的各种调查结果等,可以根据联合国的国民账户体系(System of National Accounts)估算生产及支出的GDP。

首次尝试这种估算的研究是在日本一桥大学经济研究所进行的。其成果以1988年的《旧日本殖民地经济统计》问世,长期以来一直被用作Maddison统计的韩国数据。对此,以落星堡经济研究所为中心,推进了对解放前的国民账户进行估算,并将其与解放后联系起来的研究。

其成果于2006年以《韩国经济增长1910-1945》金洛年编排出版,由日本立桥大学经济研究所在东京大学出版会中翻译成《殖民地时期朝鲜国民经济核算1910-1945》进行出版。随后将解放前的统计数据以朝韩单独划分,解放后试图与统计数据建立联系,最终于2012以《韩国长期统计:国民账户》金洛年编出版。



在2018年发行了《韩国的长期统计 I, II》金洛年、朴基周、朴伊泽、车明秀编,其英文版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于2022年发行。旨在扩大至经济领域以及社会领域,建立涵盖解放前后的长期统计。而且该成果通过Maddison统计的韩国数据来反映。在以后本讲座中所提及的韩国长期统计也都是依据这些成果来进行的。

我们在前面所考察的是被选定的几个国家的人均GDP趋势,图1-3使用Maddison的数据库显示了世界总体平均值和各地区平均的趋势。各地区或世界的平均水平可以追溯到前一个时期,在没有足够的信息的情况下通常依赖于guesstimate进行逻辑推测,但我认为对总体趋势没有显著的影响。

首先,世界经济的人均GDP以黑色实线和圆圈的标识表示,从1820年的1102美元增加到2011年的15212美元,增长了13.8倍。在大约200年的时间里,增长比例最高的地区是东欧25.3倍,依次是西欧分枝21.4倍、中东18.9倍和西欧17.2倍。其中,西欧盆地(Western Offshoots)是指西欧人移居形成的国家,如北美美国、加拿大、澳大利亚和新西兰。

对此,非洲4.4倍和南亚和东南亚8.2倍也在这一时期有所增长,但因低于平均水平仍是相对滞后的地区。拉丁美洲和东亚分别增长了14.8倍和15倍,略高于世界平均水平。

如果将其按时期进行划分,观察其趋势,情况就会大有不同。可见西欧盆地的人均GDP水平保持最高,其次是西欧。在第一次世界大战之前,我们看到两个地区的差距已经拉开,在第二次世界大战期间,这两个地区的差距随着进一步拉大后逐渐缩小。世界大战期间,西欧成为战场受到打击,但西欧盆地却没有受到影响。

西欧和东欧之间的差距也随着时间发生了很大的变化。在19世纪,东欧迅速追赶了工业革命后两个地区之间的差距,但可以看出,由于第一次世界大战和1990年代东欧社会主义体制的崩溃,差距仍然大幅扩大。东欧目前已经加入欧盟,与西欧的差距正在缩小。另一方面,拉丁美洲的人均GDP与世界平均水平相差不大,其趋势也与过去200年的世界平均水平相似。



由此可见，其余地区在19世纪或20世纪中期基本处于停滞状态，与西欧的差距进一步拉大。东亚在20世纪60年代以后增长率加快，迅速缩小了与世界平均水平的差距，但其增长速度比图1-2中所示的日本和韩国要慢，人均GDP水平也没有达到这一水平。

战前在日本和韩国已经出现的catch up的动向，如果扩大到整个东亚的话，也只是微弱的增长。这是因为在此地区人口比重占绝对优势的中国的趋势已经大幅既定。东亚的平均水平也包括朝鲜和蒙古。对此，另一个人口密集地区南亚和东南亚也虽然较东亚起步较晚，但逐渐以高于世界平均水平的速度增长。

中东的人均GDP领先亚洲，缩小了与世界平均水平的差距，近来之所以能够超过这一差距，是因为其中有很多产油国。最后，非洲虽然是数据最差的地区，但从人均GDP的趋势来看，二战后曾一度高于亚洲，但由于1980年至2000年的停滞，非洲再次排在最末位。



1-2 东亚国家的catch up (追赶)

在上节课，我们利用Maddison的人均GDP统计数据，对世界经济史进行了概述。本节课我们聚焦东亚,更详细地了解一下20世纪以后人均GDP的catch up是以何种形式展开的。

图1-4用Maddison统计数据库将美国的人均GDP设为100时，观察东亚各国的人均GDP占多少百分比。其中也显示了英国的数据，虽然在20世纪前半期有起伏，但只有美国的80%左右，二战后稳定在70%左右。进入20世纪，可以看出美国在生产率上是世界经济的领袖。将东亚的人均GDP与美国参照进行比较也正因如此。

首先，在第一次世界大战之前，日本的人均GDP仅为美国的1/4水平，但20世纪20年代为30%,20世纪30年代为40%,差距逐渐缩小。此后进入战时体制，差距逐渐拉大，日本在战败后降至19%。

台湾也出现了和日本类似的趋势。台湾在第一次世界大战前从美国的13%缩小到20世纪30年代的21%，但经过战争时期，50年代初降至10%以下。韩国也与此没有什么不同。20世纪10年代初期是美国的12%，30年代缩小到17%，但经过战争时期、解放和分裂，差距扩大到美国的6%。

东亚三国出现类似的趋势，是因为在这个时期被编入了日本帝国的地区统合体制，它们的经济是相互联动的。值得注意的是，这些地区在被编入战时体制之前，增长率比美国快，正在进行“catch up”。

二战后，日本的catch up以惊人的速度实现。战败后，从美国的19%缩小到1970年的65%。此后，虽然速度有所下降，但1991年以85%达到顶峰后，经过所谓“失去的20年”停滞期，与美国的差距再次拉大，目前停留在70%的水平。



台灣的catch up虽然比日本起步晚一些，但一直持续至今，已达到美国的81%。超过了日本。韩国的起步比台湾更晚，虽然直到1967年还没有超过美国的10%，但此后迅速进行了catch up，目前已达到美国的69%。虽然在2018年数据几乎接近日本，但是根据最近更新的数据，则可以认为PPP标准已经超过了日本。朝鲜目前只有美国的3%，还没有达到解放前的水平。

由此可能会引发很多问题。例如，在20世纪以后，除朝鲜以外的东亚国家的经济增长虽然存在时间差，但出现类似情况的原因是什么？而且在解放前进入战时体制之前，对美国的catch up进展缓慢，但在战后高速增长时期，出现了快速catch up的对比。决定这两个时期出现差异的因素是什么呢？东亚国家在战时体制下与美国的差距迅速拉大，这是为什么呢？

而且，东亚国家在战后会经历政治混乱和体制改编。但是与日本相比，台湾和韩国的catch up起步较晚，这又是为什么呢？此前经济增长的日本自1992年以后与美国的差距反而拉大，台湾和韩国很快也会步日本的后尘吗？韩国和朝鲜在解放前呈现出类似的趋势，但解放后却呈现出完全不同的局面，这是为什么呢？对于这样的问题，今后我们将通过整体的课程去寻找自己的答案。



1-3

制度与经济增长

上一节课我们围绕20世纪东亚展开的人均GDP的catch up所提出的问题，体现了本课程所考虑的问题意识的一部分。至于以何种视角看待这些问题，我认为有必要进行理论上的探讨。本节课我们将以“制度和经济增长”为主题，下节课将以“经济落后和catch up”为主题来讨论这一点。

韩国在开放港口之后被编入殖民地统治体制，解放后经历了南北分裂、体制发生了变化。在此过程中，制度发生了改变，经济成果也所不同。如果说除了制度，环境或历史条件不同的两个国家的经济成果也有所不同，那么很难辨别其成果的差异到底是因为制度还是因为其他环境或历史条件的不同。

对此，韩国展示了把这样的环境或历史性条件进行统一控制的情况之下，制度的变化会出现怎样的差异的实验结果。前面所提到的韩国近现代史就像制度的实验室，正是考虑到这一点而来。

这里我想简要介绍一下有关制度与经济增长关系的主要研究。并且探讨一下起源于西方的近代制度是如何扩散到世界其他地区的。通过这些，让我们思考一下制度在何种意义上对经济增长产生了影响。

首先，我来介绍诺斯和托马斯在1973年的研究。他们提出了为什么西方世界首次出现了其他地区没有出现的人均收入持续增长的经济增长这样一个问题，并从西方出现有效的经济制度中寻找其原因。

为了实现经济增长，一般可以考虑开发技术，提高投入生产的资本和劳动的质量，或者利用公司等比个人更大的组织来灵活运用规模经济。

但是他们认为，这些因素，即技术开发、资本积累、教育、规模经济并不是经济增长的原因，而是增长本身。应该问的是，这些通常被认为是经济增长的因素为什么在某些社会出现，在其他社会没有出现。他们认为，造成这种差异的原因是是否出现高效的经济制度。



并且认为高效的经济制度的核心是设定财产权，使个人利益或成本接近社会利益或成本。两种利益或成本的背离是指未经当事人同意的情况下，第三方占据利益的一部分或将部分成本转嫁给他们。这往往发生在财产权设置不正确或无法行使时。

在经济学中，有一个概念叫做外部性(externality)，是指即使非交易方的第三方因该交易而获利或蒙受损失，也不会支付代价或得到补偿的状态。因此，完美保障财产权是指外部性为零的世界。

在这样的世界中，经济增长即使放置不管，也可以自行实现。因为，当人们拥有物质需求，并按自己付出多少来给予相应的奖励时，每个人各自努力的结果不仅会带来个人利益，还会带来社会利益的增加。然而，这样的理想世界在现实中是不存在的，如果追溯到过去，情况更是如此。因为保护或执行财产权时遇到的障碍很多。

下面来介绍两个他们举的例子。一是某个人发明了一种新技术，可以大大提高整个社会的效益。

如果这项发明被别人随意抄袭使用，也就是免费乘车，那么发明它的个人不仅无法获得收益，就连投入的费用也无法收回。因为这是可以预料到的，所以很有可能这种发明连尝试都不会开始。可以说，目前的专利制度不是自然形成的，而是人为设计来保护知识产权的装置。没有这些制度，我们就不能指望技术革新真正兴起。

另一个案例是关于近代早期西班牙国王赋予牧羊公会Mesta的特权。Mesta被赋予了驱赶羊群移动的特权，但在此过程中，农民种植的作物会随着羊群的经过而遭受损失。即农民的土地财产权没有得到很好的保护。

假设农民因此遭受的损失规模为100，Mesta获得的利益为40，其中20作为特权的代价上缴给国王。那么农民蒙受的损失100大于Mesta和国王的收益总和40，因此可以说这是一个社会性效率低下的制度。



如果废除赋予Mesta的特权，保护农民的土地财产权，对整个社会都有好处，但改变制度并不容易。不仅蒙受损失的Mesta会反对，国王也需要向收益增加的农民征税，而不是让Mesta上缴，这不仅需要花费成本，而且结果也不确定。

如果通过制度变化获得收益的农民可以获得了40，虽然也可以考虑补偿给Mesta和国王以前的收入的方案，但这也很难实现。农民从羊群那里受到的损失各不相同，很难准确了解具体数据，而且由于双方都想免费乘车，因此很难商定如何分担40的负担。

这两个事例很好地说明了为什么难以建立有效的制度，低效率的制度为什么能够持续下去，以及经济增长为什么会因此而无法实现。并且，设定财产权的时候，排除免费乘车很重要，这就使得个人或一些群体难以承受，从而让国家来承担其角色。

在中世纪的欧洲，封建领主分散地统治着小规模的领土，但是在近代初期，出现了将他们合并的国民国家，负责创造公共财产。因为国防或治安维持等公共财产在经济学中所说的规模经济作用下，规模越大，单位成本就越低。

但是，无法保障这样出现的国民国家朝着对经济增长做出贡献的方向建立财产权。而与之相反的情况反而很多。由于国民国家之间的竞争和频繁的战争，国王一直缺乏财政收入，于是便滥发特权，如授予Mesta特权。商业和制造业也都被授予不同种类的特权。

国王在很大程度上依赖于从大商人那里借入资金，但未能偿还资金的状况频发。诺斯和托马斯认为，在1500年至1700年国民国家出现的时期，西班牙和法国因国家未能保护好财产权而导致经济衰退或停滞。

与此相比，把荷兰和英国作为了经济增长的成功案例。荷兰在这一时期成为海上贸易和商业中心，因为出现了很多降低交易成本的革新。在市场不发达的时期，无论是了解交易品种的正常价格，还是就交易条件进行协商，以及出现纠纷时解决，都是难以确定的，且成本很高。他们分别被称为探索费用，协商费用，履行费用，整体概括称为交易成本。



在经济原理等经济学讲义中,虽然教导市场上的需求者和供应者相遇形成市场均衡价格,但是为了方便说明,将交易成本假设为0。但现实中并非如此,如果交易成本高于交易获得的利益,那么交易本身就根本无法成立。

因此,如果可以降低交易带来的不确定性和成本,交易就会扩大,因此分工就会深化,从而推动经济的增长。正是在这一时期荷兰发生了这样的过程。随着交易规模的不断扩大,出现了专业化的交易所,标准的营业实践已经落实,一旦出现商业纠纷,就诉诸法院,建立确保合同履行的体制。

商业的发达带来了船舶运输业的革新,农业和制造业也取得专业化进展,生产有所增加。资本市场的发展为这一进程提供了支持。结果,正如前面图1-2所示,荷兰在19世纪初直到被英国逆转之前,一直享有最富裕的生活水平。

对此,虽然英国起步相对较晚,但在模仿或引进荷兰的制度和技術方面却十分积极,而且相当接近。此外,英国新增加的是引进专利制度,制定了保护知识产权的制度机制。这对工业革命中加速技术创新作出了巨大贡献。

值得注意的是,英国通过1688年的名誉革命,将国王也受法律支配的立宪主义原理在制度上进行确立。诺斯和温格斯特的研究强调了其意义。

与西班牙和法国相比,英国国王的权力受到议会更多的牵制,但尽管如此,还是没能阻止国王随意滥用征税权。国王和议会就增税等问题频繁对立,但最终通过名誉革命确立了王权不再凌驾于法律之上的制度,开启了议会优势地位的时代。

议会还掌握了财政方面的权限,如果不通过议会就不能征税,而且还拥有了对政府支出的监督权。在司法制度中,国王的特权被废除,习惯法的优势地位被确立,保障了法官的身份,使其独立于国王。这意味着公民们享受了更多的政治自由和权利,这使财产权的保护和经济自由得到了更可靠的保障。



名誉革命伴随着财政革命。过去国王侵犯财产权往往是由财政危机引发的,因此有必要消除其根源。议会的支持者同意通过增税使政府财政健全,而不是在政府内部拥有更多的发言权。政府债务也有所增加,但发行国债的利率却大幅下滑。1693年14%的利率持续下降,在1730年降至3%。这可以说是金融市场表明新体制不仅可以预测,而且受到信任。这种国债市场的稳定化对资本市场的发展也会产生积极影响,民间证券发行利率也会下降。

利率下降将会扩大有收益的投资范围,从而促进资本积累。虽然由名誉革命引起的制度变化对经济增长产生了多种影响,但他们将焦点放在了财政和资本市场上,可以说是对其意义的具体体现。

以上是着眼于英国和荷兰,考察了以保护财产权为核心的有效制度对经济增长产生了积极影响,但这能普及到什么程度,还有待进一步探讨。

一般来说,通常,为了验证制度是否是说明经济发展的主要因素,我们用通过创建一个包含表示制度质量的变量的经济增长模型的方法来进行推测。

这里的制度质量是通过问卷调查的方法来衡量的,例如,以问卷调查来衡量各国在财产权侵害中是否保护得很好。按国家的制度质量越高,就给予更高分数的指标来显示。这里,我将介绍阿西莫格鲁,强森,罗宾逊的研究。

如果把各国的人均收入或增长率表示为Y,把制度的质量表示为X,把其他影响人均收入的变数统称为Z,就可以制作出 $Y=a+bX+cZ+e$ 的模型。这里e表示误差项。我们把它叫做公式1-1。

通过这个模型可以推测出制度质量的差异对人均收入产生了怎样的影响。换句话说,以有这些数据的国家为对象,即使考虑到各国人均收入的差异中除制度以外的其他变量Z的差异,也可以推测出制度质量,即X的差异有多少。

如果X的系数值b为正(+),而且在统计上是有意义的值,例如错误的概率不到5%的话,可以解释为制度质量越高的国家人均收入越高。相反,如果b是统计上是不显著的值,就很难主张制度对经济增长有贡献。



但是,作为说明变量的制度质量 X 虽然会对作为被说明变量的人均收入 Y 产生影响,但反过来, Y 提高, X 随之提高的逆因果关系也有可能存在。制度等变量受许多其他变量的影响,因此很难排除存在反向因果关系的可能性。在这种情况下,该模型表示存在内生性问题,估计结果可能会被扭曲。

这时,如果能找到与 X 有密切关系但与 Y 没有相关关系的变量 D ,则首先使用 D 来推测 X ,然后用推断结果的 \hat{X} 来推测 Y ,从而避免反向因果关系问题。这个 D 被称为工具变量,这种估算被称为使用工具变量的两阶段最小二乘法。

阿西莫格鲁、强森和罗宾逊的研究通过这种推测方法得出了制度的质量差异会导致经济成果差异的结论。他们以过去曾是欧洲殖民地的国家为对象,假设欧洲人在殖民地定居时所面临的死亡率对他们的殖民地定居和殖民地统治策略产生了影响。

也就是说,在欧洲人死亡人数相对较少的殖民地,会有更多的欧洲人进行移居,虽然移植了相对更好的政治和经济制度,但在相反的情况下,很可能实行了掠夺殖民地的制度。

这样出现的殖民地的制度类型在独立以后也延续了下来,规定了现在各国的制度。为了证明这种假设,他们首先利用欧洲人殖民地定居时各国的死亡率作为工具变量,来表明当前的制度差异,即解释了,并用这样推测的结果 \hat{X} 来表明经济成果的差异在统计上是有意义的。

该推测所使用的样本数量为64个国家。因此,保护财产权的制度促进经济增长的结论,不仅在我们前面所考察的英国和荷兰,在很多国家也都普遍成立。

这里需要进一步思考的问题是,英国首先确立的以保护财产权为核心的有效制度是如何扩散到其他地区的。我们前面曾说过,英国模仿或引进了荷兰的制度和技术,我认为这样的途径在邻国之间非常重要。但是,在绝对王权的旧体制下,与它在原理上发生冲突的近代制度很难被自发的接收,这往往伴随着政治变革。



1789년의法国革命就是其中典型的例子。法国革命和之前发生的荣誉革命或1776年美国“独立宣言”一样，都受到启蒙主义思想的影响。尤其是美国“独立宣言”，为法国改革者带来了巨大的灵感。不仅展示了从下面所展开的革命的可行性，还立足于国民主权、自然权(natural rights)、权力分立和宪法上的牵制和平衡等启蒙主义思想，实现了新的政治体制。

但是，虽然法国革命致力于把人们从压迫中解放出来、树立了自由和平等的旗帜，但是通过革命成立的共和政体，此后经历了恐怖政治、拿破仑的独裁统治、复辟君主政体，再次到共和政体的持续不断的政治体制的剧变和不稳定，这一点与前两次革命有所不同。

从制度的整顿和扩散这一点来看，最受瞩目的法国革命遗产可以说是拿破仑法典或民法。在革命以前的法国，罗马法和封建时代的法制以及不同地区的习惯法混杂在一起，婚姻和家庭则受罗马天主教会的管辖。革命试图通过统一这些法律，以对所有法国人适用同样的法律来体现平等的原则。

不仅如此,世袭贵族或特权被废除,认可了信仰自由,排除了教会对国家的影响,使其世俗化。而人身自由、契约自由、过失责任的原则、私有产权的不可侵犯也已经成为基本原理。这可以说是规范近代市民社会的法律的典型，同时也包含着诺斯和托马斯之前所说的高效制度的核心。

法国革命的成功对欧洲其他旧体制国家的君主构来说，构成了巨大的威胁。因为他们担心革命会出口到他们自己的国家。试图阻止这种情况的国家和法国之间的战争Napoleonic Wars (拿破仑战争) 发生于1803年至1815年，在此过程中拿破仑占领了欧洲大陆的很多地区或将其置于其影响之下。此时，这些地区的旧体制崩溃，民族主义高涨，拿破仑法典也扩散到了这些地区。

在德国，在法国占领地区实行的拿破仑法典和除此之外的旧习惯法等全都混杂在一起。德国统一以后，以罗马法为基础，根据当时欧洲的个人主义自由主义思想，在19世纪末制定了系统化的民法。在瑞士，虽然受到20世纪初先实行的两种法典的影响，但也制定了具备独立体系的民法。

这些民法是在立足于人类的理性，建立合理的法律体系的前提下制定的成文法。它以习惯法为基础不同于英国的不成文法。由此，欧洲大陆确立了与英美习惯法形成对比的大陆法或民法体系。



那么，现代制度是如何向欧洲以外的地区扩散的呢？虽然上述阿西莫格鲁、强森和罗宾逊的研究并没有阐明这一点，但我们可以发现，欧洲殖民统治是把他们的制度推广到其他地区的重要契机。

在曾是英国殖民地的北美、澳大利亚、新西兰和印度等国家都传授了英国的习惯法。对此，大陆、欧洲国家的殖民地拉丁美洲、非洲等大部分地区都继承了大陆法民法的遗产。虽然欧洲的制度也有几乎原封不动照搬的情况，但我认为应该与当地所实行的制度发生冲突或融合的过程中已经进行修正。无论是哪种情况，都可以说他们的制度是被外部权力所移植或强加到了殖民地。

此外，自愿接受欧洲法律制度的情况也很常见。日本就是代表性的例子，1896年制定的日本民法是以明治维新体制转换为前提，以德国和法国的民法为模型制定的。韩国的情况以后会详细进行讨论，但作为殖民地法制的一部分，1911年日本的民法几乎被原封不动地被移植。

总之，近代制度的扩散虽然也有通过模仿形成的，但很多是通过革命、战争或殖民地统治形成的。



1-4 经济落后和catch up

上一节课,我们了解到,包括韩国在内的东亚国家也迅速缩小了与生产率最高的美国的差距。虽然这些国家在战后经济高速增长时期,以惊人的速度进行了追赶,但在战前也已经缓慢地进行。让我们来思考一下这种catch up是如何实现的,以及catch up发生的经济的特征是什么。

对此,格申克龙的研究中所提出的经济落后性假说给了我们很大的启示。他指出,在19世纪的欧洲,对于先发展国家英国,相对落后的国家法国、德国和俄罗斯不仅经济增长速度很快,而且在此过程中,无论是工业的生产还是组织结构上,都呈现出先发展国家所没有的特征。

格申克龙虽然用了落后国这个说法,但与其说是一般的落后国家,不如说是对比于英国相对落后的意思,所以在这里我们将用“后发展国家”来表达。

作为后发展国家经济的特点,他提出可以借鉴先发展国家已经开发好的技术。这可以说是后发展性的利益,因此,后发展国家的工业化一旦开始,迅速进行的可能性就越大。

与此同时,后发展国家还存在工业化进程的障碍因素。与后发展国家普遍被认为劳动比资本丰富的一般认识不同,他指出,需要训练工人断掉与土地相连的脐带,使其更适合工厂,但这种劳动却出乎意料地不足。与此同时,资本不足,经营资源也无法充分形成。

除此之外,产业之间还存在互补性,这也限制了工业化的起步。比如,铁路业没有提供燃料的煤碳业,就很难发展;相反,煤碳业需要铺设很多铁路,才能实现煤炭的廉价运输。也就是说,一个行业的发展对另一个行业产生了积极的外部效应,后者的发展又推动了前者的发展。

同时发展具有互补性的产业是高效的,如果可行的话,后发展国的增长率便会迅速提高。但是,后发展国家要同时发展各种新生产业是非常困难的,因为必须要克服上述的劳动、资金、经营资源不足等大障碍。

关于劳动短缺问题,可以指出后发展国家反而积极地引进技术先进的生产设备。这样的生产设备大体上是资本密集型的,因此具有节约稀缺劳动的意义。



对此,由于先发展国家已经对生产设备进行了大量的投资,因此对更换新设备会有犹豫的倾向。比如说在钢铁业落后的德国引进了比英国先进的技术熔炉,之后更加落后的俄罗斯又对德国进行了同样的尝试。就正是这样的例子。

关于资金的筹措,他强调了后发展国家创造了先发展国家所没有的金融制度。英国的银行以商业银行为中心,以贴现形式为企业发行的票据提供短期资金。与此不同,包括德国在内的欧洲大陆的银行为了铁路建设或工业化,则发展成为向企业提供长短期资金的投资银行。

而且,在英国的工业革命中,股份公司制度没有得到有效的利用,但在后发展国家的工业化中,股份公司却发挥了主导作用。尤其是在德国,银行不仅通过合并实现了规模化,还组织了发展到带领控制其旗下企业的卡特尔(Kartell)。

它为资本密集型产业提供了大规模的资金。对此,俄罗斯农奴制一直维持到1861年,与德国相比更加落后。结果,由于在推进工业化和调动资金方面存在更多的障碍,因此仅靠改变金融制度远远不够,需要由国家亲自出面发挥作用。

作为后发展国的工业化中出现的又一个特征,他提出了工业化意识形态的作用。要突破后发展国长期以来阻碍发展的壁垒,仅靠简单的合理讨论是难以实现的,通过一种近乎宗教的热情(a quasi-religious fever)或能够走向更美好未来的信念,点燃人类的想象力、为经济发展凝聚力量的工业化意识形态登场。

我认为法国的圣西蒙主义、德国的民族主义、更落后的俄罗斯的马克思主义都担任了其作用。他通过对19世纪欧洲国家的观察,强调了后发展国家工业化开始的时间不同,在那个时间点上,落后程度的差异对随后的发展路径有着重大影响。

他将其概括为:也就是说,从出发点来看,越是落后的国家,采矿业的生长就越快,工业化呈现出不连续加速的趋势。另外,落后的程度越高,生产设备和企业的规模就越大,比起消费材料,更注重生产材料,减少人民消费,即增加储蓄的压力就越大。



进而,正如前面对德国和俄罗斯所述,落后程度越高,在资金供应上就会创造出发达国家所没有的制度,发挥很大的作用。并且他还提到,落后程度越高,向农业增长的产业提供市场或资金的积极作用就越少。

如此,格申克龙的假设是后发展国由于先发展国的存在而与它们踏上不同的发展路径,因此与单线展望经济发展的以下研究存在差异。例如,马克思认为,“在工业上处于先进状态的国家,展示了一个不太发达的国家的未来。”而罗斯托认为,各国经济经历了5个发展阶段:传统社会、形成飞跃前置条件的过渡期、飞跃阶段、成熟阶段和大众消费社会。

即各国经济处于前5个阶段中的某个阶段,后起国家沿着发达国家经过的阶段单线发展。对此,格申克龙表示:“后起国家的经济发展正是由于其落后性,所以具有与发达国家不同的发展类型,不仅是落后的程度,而且从上述制度或意识形态来看,各国的应对方式也因国内的因素而发生了变化。

格申克龙的假说是以19世纪的欧洲为对象提出的,这在其他时期和地区能够多大程度普及呢?他的假设之一是,越是落后的国家,与发达国家的技术差距就越大,如果能够很好地利用这一点,增长率就越高,就会出现“catch up”。

阿布拉莫维奇研究了这一点。此时,利用与发达国家的技术差距的能力至关重要,我们称之为社会能力。它既包括以教育水平为代表的技术能力,也包括政治、商业、产业、金融的制度。

其中,组织和运营大规模事业的经验,以及能够筹集大规模资金的金融制度和市场非常重要。然而,如何定义这种社会能力是一个重要问题,但却难以证实,而且存在争议。

弗里德曼对社会能力的理解更加全面。他认为社会能力不仅包括通过个人教育、培训和经验获得的人力资本,还包括可称为集体经验的能力,这取决于劳动道德、学习态度、社会规范和信任。

他还进一步强调,这种社会能力是从原始时期开始长期形成的,在家庭和共同体中,世代相传积累而成。所以,这种能力并不是立马就能形成的,但也不会轻易消失。需要注意的是,如果没有社会能力支撑,即使很落后,也很难实现catch up。



阿布拉莫维奇以1870年以后的拥有人均GDP数据的16个国家为对象,验证了是否收入越低增长率越高。其中除了英国和美国之外,还包括欧洲的主要国家和澳大利亚及日本,这些国家都可以看作是具备了社会能力。据他表示,作为经济领袖国家的美国和其他国家之间的收入差距在二战之前反而拉大,之后迅速缩小。

通过除美国以外的国家内部的收入分布图来看,除了战争时期进一步扩大之外,呈现出减少的趋势。并且,即使从初期的收入水平和随后的增长率之间的相关系数来看,除了战争时期以外,大体上都是负数。也就是说,在这些国家中,当初收入较低的国家增长率较快。但是相关系数在1950年至1973年之间高达为-0.9左右,1973年以后大幅下降,各时期有所差异。

据他所说,在第二次世界大战期间,已经有很多技术在美国完成开发并使用,但在其他国家还没有开发出来。随着这种扩大的技术差距在战后被正式运用,catch up得以迅速兴起。再加上教育水平的提高,不仅提高了社会能力,而且扩大了国际贸易,促进了知识和技术传播。

1973年以后,随着技术差距逐渐缩小,catch up也随之减弱。并且到了19世纪,catch up相对较弱,这是因为农业的比重较高,社会能力比起战后也受到了限制。再加上两次世界大战和大萧条的影响,阻碍了知识的传播。

这里使用的数据是利用Maddison数据库的各国人均GDP,因此很难捕捉到被格申克龙所关注的采矿业的急剧增长。但是我们可以得知,格申克龙的经济落后性假设并不仅限于被他作为对象的19世纪的欧洲,还可以扩大适用到其他时期和其他地区。

正如我们前面所看到的,在韩国经济增长的过程中,除了借助技术实现快速catch up之外,还出现了金融制度或工业化意识形态等经济落后性的多种特征。我认为,如果扩大应用他的假设,有助于更丰富地理解韩国经济增长的历史过程。



1-5

本讲座的构成

最后,我想简单地谈谈本讲座的整体结构。

在叙述经济发展史时,可以考虑两种进行方式。一种是按照时间顺序进行考察;另一种是按主题来进行分类,然后针对各个主题,从整体的时间线进行考察。

这两种方法各有优缺点。首先,不同时期的考察是一种广泛应用的方式,可以综合地展示各个时期都存在着哪些问题,哪些制度和政策已经实施,以及取得了哪些经济成果。只是很难展现出整个时期的大趋势。

对此,按照不同主题的考察利用长期统计,可以将各个主题的整体趋势一目了然,虽然可以将其与其他国家进行比较,体现韩国经济增长的特征,但综合展示各时期分别是怎样的社会方面存在着局限性。

我认为本课程中这两种方法是互补的,试图将两者兼而有之。在第一部分,我们将按主题来进行学习。我们所探讨的主题包括相当于绪论的第一周的课程主题"看待经济发展史的视角"在内,分别是"宏观经济与增长的来源"、"货币金融与财政"、"人力与物质资本的形成"、"生活水平与不平等"这5个主题。之所以能够涵盖整个时期,是因为如前面所述已经完善了涵盖过去100年的长期统计数据。

我想通过这种方式,按不同的主题来考察不同的时期出现了怎样的变化,进而和其他国家相比,韩国又表现出何种特征,也就是说试图进行纵向和横向的比较。把这样的考察安排在第一部分,让我们先了解韩国经济的大趋势。

在第二部分将整个时期分为7个部分进行考察。对于时期的区分是将解放前分为开港期和殖民地时期,将殖民地时期又分为制度变化集中时期和殖民地经济开发正式化时期来进行考察。解放后分为20世纪50年代和20世纪60~70年代的高速增长期,80年代以后以1997年外汇危机为界限,再次分为两个时期进行考察。



这种时期的区分是考虑到各个时期所处的国内外情况，所面临的问题或课题不尽相同，而相应实行的制度和政策也有所差异。我想通过它来给大家展示各个时期分别是怎样的社会，又是如何变迁的。综合第一部分和第二部分，我认为可以从不同角度展望韩国经济的发展史。

本节课作为《韩国经济发展史》的第一节课，我们探讨了“看待经济发展史的视角”。第二节课的主题是“宏观经济与增长的源泉”。谢谢大家。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각국의 1인당 GDP의 장기추이에 관한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5분

- ①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세계경제의 리더로 부상하기 전에는 네덜란드가 그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 ② 각국의 1인당 GDP를 각국의 물가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구매력평가지수(PPP)로 나누어 비교하면, 대미 환율로 나누어 비교한 것과 비교하여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는 더 좁혀진다.
- ③ 동아시아 3국(일본, 대만, 한국)이 미국에 대한 catch up이 일어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상이다.
- ④ 약 200년간에 걸쳐 1인당 GDP의 증가 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유럽이었다. 19세기에는 산업혁명 이후 벌어졌던 서유럽과의 격차가 좁혀졌지만, 제1차 세계대전과 1990년대의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해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고, EU로 통합된 이후에는 격차가 다시 좁혀지고 있다.

정답 ③

해설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동아시아 3국의 1인당 GDP는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었다. 다만 전후에 비해 catch up의 속도가 완만했고, 전시에는 미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가 전후에 catch up이 가속화되었다. 중국은 동아시아 3국과는 달리 전전에는 catch up이 나타나지 않았고, 중국의 개혁 개방으로 정책을 전환한 후 catch up이 가속화되었다.





02 근대의 민법과 같은 제도가 확산되는 경로에는 혁명, 전쟁, 모방과 함께 '이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일까?
10분

정답 식민지 지배

해설 근대의 제도는 먼저 시민혁명(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혁명 등)을 통해 처음으로 성립하였다. 나폴레옹 전쟁은 혁명으로 만들어진 프랑스 민법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독일과 프랑스의 민법을 모방하여 자신의 민법을 제정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식민지에는 본국의 민법을 비롯한 근대적 제도가 이식되었다. 식민지 지배를 받은 나라가 훨씬 많았으므로 근대적 제도의 확산에서 식민지 지배의 경로가 중요하였다고 할 수 있다.



03 거센크론의 후발국 공업화의 특징에 관한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5분

- ① 후발국은 선발국으로부터 기술을 차용할 수 있으므로 공업화가 시작되면 그 속도가 빨라 불연속적으로 진행된다.
- ② 후발국은 자금의 조달에서 선발국에는 없는 금융제도를 창출하였다.
- ③ 후진성이 클수록 생산설비나 기업의 규모가 더 커지며, 소비재보다는 생산재에 더 중점을 두고, 인민들의 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리는 압박이 더 강해진다.
- ④ 후진성이 클수록 농업이 성장하는 산업에 시장이나 자금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더 커진다.

정답 ④

해설 선발국에서는 먼저 농업의 성장과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 농업이 그후 성장하는 산업에 시장이나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해 후발국에서는 공업화의 속도가 빠른 반면 농업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었고 농업이 다른 성장하는 산업에 시장과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은 미약하였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고서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고서

- 다음의 주제를 확인하여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한글 혹은 워드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글자크기 11pt, A4 3장 이상)

주제

재산권의 보호가 왜 경제성장에 불가결한 요소인지를 설명해 보라. 그리고 주변에서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사례를 하나 들고, 그 사례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와 침해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나아가 어떻게 하면 그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만약 그 재산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 보라. (120분)

참고

강의에서 재산권이 보호되는 효율적인 제도란 개인적 편익(비용)과 사회적 편익(비용)을 접근시키는 제도라고 하였는데, 현실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비효율적인 제도에 관한 역사 속의 사례로서 스페인 국왕의 Mesta(양치기 조합)에 부여한 특권을 예로 들어 설명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양자가 괴리되는 사례는 현재에도 무수히 많다. 예컨대 자동차의 운전자는 매연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그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보다 사회가 부담한 비용이 더 큰 경우이다. 반대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해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편익을 얻지만 그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자가 얻은 편익보다도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이 더 큰 경우이다. 이들은 각각 (-) 또는 (+)의 외부성이 있는 경우로서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제도나 기술을 가지고서도 매연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위의 두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경험 속에서 다른 사례를 찾아보기 바란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 North D. and R. Thomas(1973),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th and Weingast(1989), "Constitutions and Commitment: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Governing Public Choice in the Seventeenth-Century England",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9(4).
- Acemoglu D., S. Johnson, and J. Robinson(2001),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1(5).
- Gerschenkron A.(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Harvard University Press.
- Abramovitz D.(1986), "Catching Up, Forging Ahead, and Falling Behind",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6(2).

